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주택자금,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4 · 11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표몰이를 위한 공약이 봇물쏟아지듯 나오고있다. 말 그대로 말의 홍수를 이룬다. 공약(空約) 타후보 비방등 난무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업보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말(言)

말 많은 자를 남들이 두려워 하거니와,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果報)를 받는바, 스승 · 친구 · 형제 · 처자 · 노비(奴婢) 등의 친목이 다 견고해서 남이 깨지 못할 것이다.(정법염처경)

사람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땅히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사나운 불꽃은 세상의 재물을 태우되, 나쁜 말의 불꽃은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물을 태우는 까닭이다. 이같이 온갖 중생의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오는 터이므로, 입이야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라. (보은경)

세상의 온갖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핫바닥에 저절로 도끼가 생기게 되어 있다. 즉, 입으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함으로써 도리어 그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기세인본경)

만약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입으로 나쁜 말을 한다면, 이는 항상 날카로운 칼로 제 몸을 베고 있는 격이 된다. 악인을 찬양하고 선인을 헐뜯어서 입으로 온갖 허물을 짓는다면, 능히 나과(業果)를 초래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로 여러성자를 헐뜯으면, 앞부욱속에서 백천년을 지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야율)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범망경)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우를 만들지 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에 태어나지 말라. (보살본연경)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하고, 거칠은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말이니, 너는 진실한 말을 익히도록 해라." (대집경)

거칠은 말을 멀리함으로써 자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자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하미타경)

관련기사 2 · 3면

법인 종단등록 의무화

조계종 총무원 제 · 개정 7개법안 입법예고

'법인관리법' 종회통과여부 주목

조계종소속 중앙종무기관이나 사찰 및 승려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모든 법인은 종단에 등록해야하며 종단의 관리와 지원을 받도록하는 법인관리법안이 27일 개원하는 제120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또한 조계종 소속 부동산이 용도별로 분류, 전산화되어 사찰의 부동산관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되며 사찰토지의 임대, 사용허가, 양도, 개발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제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관리법(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을 비롯 문화재관람료관리법(〃),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개정안), 산중총회법(〃), 승려법(〃),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등의 종법 제, 개정안을 (조계종보) 2월호에 입법예고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사찰재산중 부동산의 보존, 관리와 처분 망실재산복원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준을 규정, 유휴재산방지와 고정자산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미비로인한 방실부동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안은 또한 사찰소유의 토지를 △필수보존토지(종교전통지역) △준보존토지(일반종교지역) △준개발토지(종교근린지역) △필요개발토지(근린수익지역)로 분류하고 필수 및 준보존토지는 공용수용의 경우 외에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했다. 이같은 사찰부동산의 조사근거가 미련되면 2억여평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조계종소속 사찰부동산을 전산화 할 수 있게 되며 장단기 사찰부동산 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에서는 사설사암의 교구를 원칙적으로 당해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권을 갖는 교구본사로 하도록 하고 명의만 등록한 사설사암은 96년 10월 31일까지 총무원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공포과정에서 참정권 제한으로 논란이 있었던 산중총회법은 총회 구성원으로 재적교구본사를 이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려는 총회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총무원은 또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분담금의 종류를 중앙, 관람료, 교구, 특별분담금등 4개로 분류하고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해 말사의 분담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승려법에서는 그동안 이적본사주지의 승인으로 재적본사이적이 가능하던 것을 총무원장이 승인하도록해 승려의 이동질서를 강화했다. 승납 기산은 1995년 1월1일 이후 사미(니)계를 수지한후 비구(니)계를 수지한자부터 적용하며 95년1월1일 이전 사미(니)계, 비구(니)계 수지자의 승납은 사미(니)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한편 조계총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위원장 정우)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법령을 중앙종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종회에 앞서 각 상임분과위와 종법개정심의위가 심의토록 했다.

(이준엽 기자)

입법예고 7개법안

- 법인 관리법
- 사찰부동산 관리법
- 문화재관람료 관리법
- 사암 등록 · 관리법
- 산중총회법
- 승려법
- 분담금 납부법

불교방송 정상화 '청신호'

사장에 전문경영인 조해형씨 선임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총하)는 지난 12일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조해형씨(62, 나라기획 회장)를 만장일치로 선임함으로써 1년여간 파행운영의 우려를 낳았던 불교방송이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4면)



◇조해형씨

불교방송은 지난해 초 일련의 방송사태로 인한 사장 퇴임이후 자조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전국방송망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불교방송이 신임 조해형사장의 선출과 함께 진정한 포교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느냐는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화합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위덕대 개교 '진리탑구 · 인격도야 · 이타자리'의 건학이념을 지향하는 전각종립 위덕대의 개교 · 입학 및 총장취임식이 지난 11일 제1공학관앞 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해총인, 학헤 통리원장, 김영호 회당학원이사장, 손제석 초대총장, 이의근 경북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박기환 포항시장 등 1천5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95년판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94년 10월 창간호부터 … 150부 한정 판매

현대불교신문 첫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자 창간호부터 59호(1995년 12월 27일자)까지 1995년도분을 합본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매주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명사들의 이야기와 만나는 참신한 기획, 정확한 불교계 뉴스, 지구촌 소식, 사회 제반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주는 명쾌한 칼럼 등이 담긴 이 합본집은 현대 불교사의 흐름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사불교와 쉬운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 할만한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을 권해드립니다.

□수록내용 : 창간호~59호(1년개월분)
□가 격 : 5만원(우송료 별도)
□신청접수 : 본사 총무부 전화 737-8881

진흥원 '불교매스컴 센터' 설립

이르면 가을 개원 … 방송 전문인력 양성

다가오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송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불교매스컴 센터(가칭)'가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문을 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설립 추진중인 불교매스컴 센터는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수준 높은 불교 인재를 키워내는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방송포교의 탄탄한 기초를 쌓는 획기적인 포교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교매스컴 센터가 앞으로 강의하게될 교육프로그램은 방송PD, 광고PD, 아나운서, 리포터, 구성작가, 영화시나리오작가, 카메라, 음향, 방송편집, 컴퓨터그래픽 등.

진흥원은 이같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국대, 위덕대등 불교종립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종립대학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영상산업에 관심있는 불교인재들을 양성해 불교방송 언론매체에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방송사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대프로덕션과 같은 불교관련 영상프로덕션의 계속적인 설립에 대비, 불교매스컴 센터를 통해 배출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자게시판 바다피아 머텔BBS ~922 ~9202
국보급 고려 금동불상 발견 6면
중요사찰에 유급포교사제 추진 15면
지방사찰 문화예술 '열린공간' 13면
가족 봉나들이 산사로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변산온천에서 태고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한국 최고의 자연휴양지 변산반도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변산온천은 변산반도의 심장에 위치하여 바다, 산, 계곡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변온천입니다.

변산에서의 휴양 변산온천에서 시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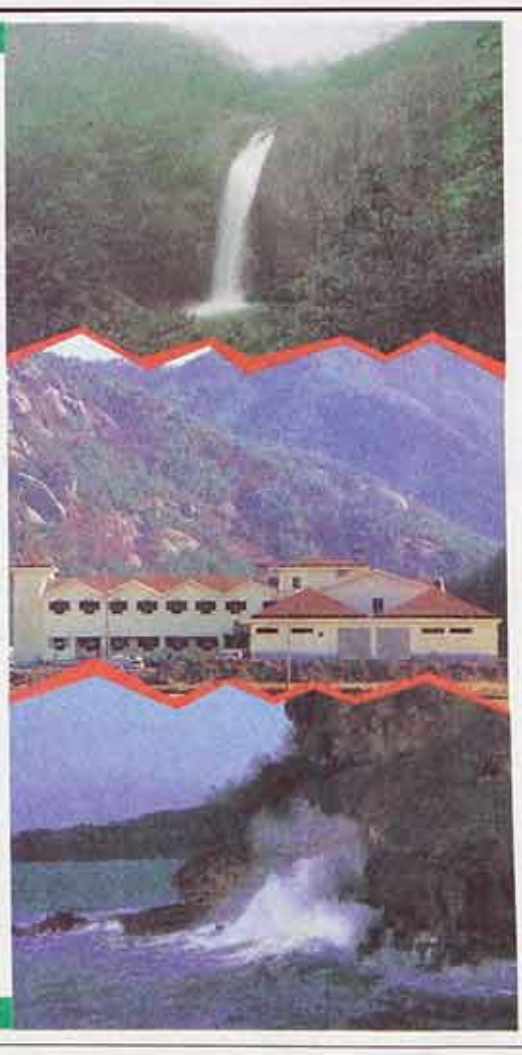
고품격 레저문화의 신기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명소인 채석강, 해수욕장, 내소사, 직소폭포, 개암사, 천문대, 철병암 등으로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한 차원 높은 휴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탄산나트륨, 알칼리성 수질의 온천수가 공급되는 온천탕은 무색 무명의 부드러운 물로서 피로 회복, 신경통, 갱년기장애, 노화방지, 피부미용 및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부인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천혜의 온천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변온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채석강, 변산해수욕장을 바로 곁에 두고, 산과 계곡의 신비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매머드 자연 휴양지로 국내 최초의 해변 온천입니다.

편리한 교통망, 최고의 서비스
서울에서 쉽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서울→태인IC→변산온천:약 3시간30분 소요), 국내 최고의 해변 드라이브 코스,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최상의 안락함을 느껴보십시오.

YONSAN SPA RESORT 변산온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1번지
사무실 : TEL(0683) 82-8539, 83-8539
FAX(0683) 83-9555
리조텔 : TEL(0683) 82-5390~2



사 설

법인관리법의 숙제

조계종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이 불교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은 '삼보정재의 무분별한 사용제한'과 '종지종통 받들기'를 내세워 오랜 기간의 고심끝에 이 법의 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계종의 유관법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인관리법 제정안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그간 종단 내부에 형성된 법인들이 자체적 역량강화와 목적사업 추진에 힘을 쏟아 온 반면 종단의 체제에 대한 미온적인 협조가 문제시 된 사례도 있다. 또 조계종 소속을 표방하는 법인체가 활동내용상 법인을 우선함으로 종단의 결속력 저하를 가져 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이 종단내 유관법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장치를 두려는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계종이 고심했던 만큼이 법제정에 앞서 기존의 법인들은 관만치 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법인들은 한결같이 '법인은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체로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데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이미 그 자체로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 법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란 법률상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의 집합(재단)에 대하여 법률이 권리능력(법주체성)을 부여한 것이다. 일단 법인이 되면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인에 귀속된 재산도 그 출연자와는 관계없이 독립성을 인정받고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이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은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조계종은 그런 난항의 고충을 예견하면서도 이 법의 제정안을 내놓은 만큼 기존 법인들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등 화합적 방법으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의 규정이나 일부 법인의 임원 후보를 복수 추천토록 하고 임원의 구성에있어 조계종 승려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토록한 조항, 등록·정관 개정등 규정을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들은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 할 수 있어 운영상 약재가 될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일부 기존 법인의 인적 구성과 운영성격이 종단의 관리 아래 놓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법인이나 불교TV처럼 주식회사 형태인 법인에 대한 관리의 한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시원스레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는 쉽게 간과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쨌거나 조계종의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논쟁의 선을 넘어 탈·분종의 위기로까지 번져가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목적도 실행 과정이 좋지 못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게 마련이다. 기왕에 제정안을 내놓은 조계종은 좀더 열린 가슴으로 기존 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안을 다듬어 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인들도 거부의사 표현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권한과 법적인 보호범위를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발전적인 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산문밖의 사람들에게 권리다툼이나 재산싸움쯤으로 보여진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불교계로서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 린 마 당 선거와 구업

4·11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이 제세상을 만난 듯 수없는 공약이 난무한다. 여기에는 남을 짓밟더라도 당선하자는 비방에서 실현불가능한 공약(空約)성 공약까지 나라가 온통 '말' 잔치로 어수선하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정치인들의 독설과 비방은 곧 구업이다. 그 업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되레 국민이 정치 걱정…무주상 보시 실천해야

도 문 〈대각사 주지〉

얼마전 모 정치인의 방문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선거철이면 이들 정치인들이 인사를 빙자해 찾아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고 가곤한다. 한결같이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말을 듣다보면 오늘의 정치풍토가 강태공이 말한 육도(六韜)가운데 견도(犬韜)인을 연상케 한다. 서로 물고 찢고하는 개싸움판이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 되고말았다.

견도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바라밀을 행해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보시바라밀을 행해야 한다. 어리석은 이들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법(法)보시, 공포에 떠는 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애(無畏)보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 주는 재(財)보시. 물론 보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한다. 이러한 실천행이 있는 정치인이 있을 때 견도인 오늘의 정치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밝은안목(지혜)으로 개싸움하는이들을 가려내도록 해야하겠다.

현명한 유권자 '거친말하는 천한사람' 가려야

조홍식 〈성균관대 덩예교수〉

4·11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정당은 마치 사활을 건 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칠고 삭막할 뿐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거친 말과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발전정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말은 정치인의 교양과 당사자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공격해 그 결과로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 거친 말들을 쏟아내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은 현명하다.

동양의 고전에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공자는 〈논어〉에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있다. 즉 번드르한 말을 앞세우는 사람치고 어진 이가 드물다는 것이다.

불교의 〈숫타니파타〉의 가르침도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거나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 판단치 말고 성실성과 진실성이 담긴 행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선거를 앞두고 거칠고 삭막한 세태를 꾸짖는 가르침이다.

"실현가능한 공약 내세울때 민주정치 지름길"

손동일 〈회사원〉

항상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급상승한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여야당이 하나같이 선거공약을 통해 국가발전을 강력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15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짧은 시간내에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도 지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들을 물밀듯이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선심성공약들이 대거 나열돼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허황되고 실현불가능한 공약, 이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공약, 지난 선거때의 공약을 재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언제까지 이런 선거풍토가 되풀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실현성이 없는 선심성공약들로 유권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공약을 눈앞에 놓고 과연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난감하다. 일부에서는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에 앞서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선행된다면 공명선거는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은 물론 민주정치의 첩경이 될 것이다.

말…말…말

▲金 총재에게 김필종(金必鍾·필히 종친다)이란 이름을 무료로 작명(作名)해 주고 싶다.

▲신한국당 광고에는 '최진실'씨만 나오지 '진실성'은 없다. 인기탤런트를 앞세워 정치선전을 펼치는 모습에서 쇠락하는 졸부의 말로를 보는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 독주 독단의 3독정치는 하프라인까지 뛰어나간 골키퍼가 축구를 망치듯 국정전반을 망치고 있다.

▲농부가 하루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먹어치우면 다음해 농사는 뭘로 짓겠느냐.

▲김종필총재는 자민련도 제3자에게 맡기고 정치의 제3자로 물러나 도덕경이나 읽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얼굴마담 격으로 무임승차한 이회창의장이 실질적으로 신한국당의 선거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의장은 김대통령의 용병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했다.

▲'三戒시계'는 지난 92년 대선때 '泳三시계'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한푼도 안받았다는 김대통령과 돈이 없어 남의 당사까지 팔아 선거비용으로 쓴다는 여당의 총장이 웬 돈이 그렇게 많아 시계잔치인가.

▲TK를 한국병이라더니 PK라는 신한국병을 만들었습니다. 군화를 한국병 이라더니 등산화라는 신한국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당도 신한국당의 '돈바람'을 흉내낼 수 없다. 공명선거라는 양머리를 내놓고 돈바람, 표적수사, 흑색선전이라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곳이 신한국당 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온갖 정력을 쏟고 있는데 사회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 민주당은 아무 상관없이 폭로나 욕만 하고 다니는 당인데 나라를 제대로 말길 수 있는가.

▲김종필씨는 한번도 소신있게 정치를 한적이 없는 분이다. 그런 인물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우리 대구·경북을 마구 흔들고 있다. 자민련은 아직도 권력향수를 잊지 못하는 역대 대권자의 친인척집단에 불과하다.

▲우리 정치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병목지점을 벗어나지 못한채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30여년을 버텨온 3金이라는 장벽에는 이제 부패의 곰팡이와 독선의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다.

▲김윤환대표가 'TK의 이완용'이면 김종필총재는 '충청도의 이완용'이다.

▲그냥 놔뒀더라면 역사의 저쪽으로 사라졌을 김종필 총재를 결과적으로 절묘하게 살려내 보수논쟁에 불이 붙게 한 김영상 대통령은 확실한 차기 노벨의학상 감이다.

▲YS의 안정론은 '권력누수 방지론'이고, DJ의 견제론은 '대권마련론'이며, JP의 보수원조론은 '이삭줍기론'일 뿐이니 하나로 묶으면 결국 '국민기만론'에 다름아니다.

▲국민회의는 이미 세번이나 대선에서 실패한 분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만든 일인지하(一人之下)의 붕당이며 자민련은 집권당대표로 있던 분이 대권욕 때문에 만든 지역당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국보 1호감!!

목어

국민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다. 그런데 우리국민 30%가 위염·관절염·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한 생산성 손실이 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예사로 보아 넘길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89년 17%에서 95년 30%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의 원인은 高영양, 운동부족, 스트레스라고 한다. 너무 잘 먹고, 시간이 없거나 게으른탓에 운동을 못하고,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사는것이 '건강의 적'이 되고있다. 식탐을 덜고, 신체관리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스리는 등 노력여하에 따라 국민건강지수는 달라질수 있다.

그런데도 만성질환이 증가추이를 보이니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무서운 말을 우리는 실감못하나 보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수면부족, 절제없는 식사, 근심, 과로, 애욕, 성냄등을 경계하셨다.

보사연도 건강을 위해 ①금연, ②절주, ③운동, ④적당한 체중유지, ⑤간식 안먹기, ⑥적당한 수면, ⑦규칙적 아침식사를 제시했다.

10~20대 절반이 아침을 거르고 남자고교생 52%가 흡연과 술을 마시고있는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건강 적신호를 대비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

정부는 국민체육시설과 예방의료시책을 세우고, 학교·직장·가정도 건강증진에 나서야 할때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외형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크해야겠다.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의 돈을 뺏으려다 가위로 혀를 잘라낸 사건, 자살하는 노인, 이혼하는 부부등이 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건강을 자부할 수 없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충족이 이뤄지지 않을때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 결과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칩니다. 그러니 건강과 행복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신경정신과 이동식박사의 진단이다. 새싹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노인들이 환히 웃을 수 있는 사회와 가정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이다. '건강은 행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행복의 제 1조건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뛰어난 승리자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법구경〉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주지 종 수

성 명 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전(前)이사장 한정섭에 대하여

위 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전 이사장으로서 1996년 2월 16일자 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합의부에서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에서는 법인 정관과 시행 세칙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조용하게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한정섭은 불자로서 반성과 참회보다는 재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도덕성이 마비된 언행을 부끄럼없이 계속 자행할 뿐만 아니라, 법인을 계속 사유화하고 파행적으로 몰아 갈 의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1996년 2월 23일 법원 합의부의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판결 이유의 핵심을 호도 함으로서 선량한 불자들의 선동 내지 동정을 구하고자 하는 비열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임원들은 진리와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많은 불자님들의 정당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1、 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재직시 1995년 8월 5일자로 자청하여 이사장 권한을 상임이사 권세철 이사에게 위임하겠다 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10월 7일자로 다시 본인 스스로 이사장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10월 2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표 수리가 되었으므로 감사가 문화체육부에 감사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한정섭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법인체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소재 상락향 수도원 사찰 경내에 허가 없는 납골당을 설치하고 교화원 법인 명의로 분양 광고를 내어 1기당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씩 받고 수십 기를 분양하여 개인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가평군에서는 법적으로 상수도와 경관 보호 지역으로 납골당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허가가 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여 납골당 설치를 하였습니다.

①상락향 수도원은 본 법인체와 관계가 없는 한정섭 개인으로 동기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법인체 명의를 도용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다는 것.

②자손 10대까지 보장하며, 종교 부지로서 납골당이 항구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선량한 불자들을 오인케 하였음.

③한정섭은 위의 탑묘(납골)설치 분양 사건으로 관할 지역인 가평군청에 행정 고발되었음.

④한정섭은 위의 탑묘(납골)사건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사건번호 95, 135388호로 현재 입건조사를 받고 있음.

※위의 탑묘 관계는 감독관청의 원상복구 결정이 나서 분양 받은 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도 본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은 하등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정섭은 이사장 취임 초반부터 법인체 발전과 불교 교리의 대중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협력을 바쳐 왔던 여러 임원들에 대하여 자기 개인 비리를 잘 알고 있음을 알고, 특히 상징적인 총재 및 교화원장, 통신대학장, 임원들을 도리어 불순분자라고 모해 매도하는 명예훼손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전상, 양심선언을 발표하여 11월 27일자로 교화원 업무 동결과 자기 측근들로 하여금 총재에게 질의를 하게 하여 녹음 도취를 하고 12월 5일까지 양심 선언문의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적절한 법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므로 총재는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든 바 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4、 종교 지도자는 청렴 결백과 정직성이 근본인데 가짜 유니온대학 박사 학위증을 입수하여 철학박사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법회에서 포교 왕이며, 생불(生佛)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 법사로서 위와같이 도덕성이 결여되고 비양심적인 행위가 선량한 불자들의 신앙심을 흐리게 하며, "5역지죄"중의 하나인 파화합승으로 한정섭은 불자들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불교는 감정이 아닌 이치라는 것을 현명한 불자님들께 알려 드리며, 또한 부처님께서는 세속을 떠난 사람은 세속 법으로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한정섭에게 여러측면으로 타협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한정섭은 다시 지방 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므로 한국불교교화원 임원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됨을 통찰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3월 일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권한대행 상임이사 권 세 철

교화원장 정 창 교

감 사 이 정 명

효율관리 '공감' … 적용범위 '논란'

조계종 '법인관리법' 입법예고 파장

27일 개원하는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불교관련 법인단체에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의 발원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찰은 물론 승려가 설립한 각종법인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관리법은 정관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와 "법인의 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를 다수로 함"을 문구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선학원 대각회를 비롯 기타 사암을 관장하에 두고있는 법인의 이사는 조계종 승려가 2/3 이상 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법인이 해산 할 때는 잔여재산을 (재)불교중앙교원 또는 종단의 유사법인에 귀속토록 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법인관리법은 불교중앙교원, 동국학원 등 종단에서 출원한 법인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비영리, 영리법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법인들의 조계종 귀속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관련 법인의 실무자들은 "법인은 민법이 인정하는 인격이 있는 것으로 종단에 귀속시키고자 하는것은 사회법아래에서 중간관리 하겠다는 옥상옥이다"며 "종단에서 출연한 법인이외에는 법인관리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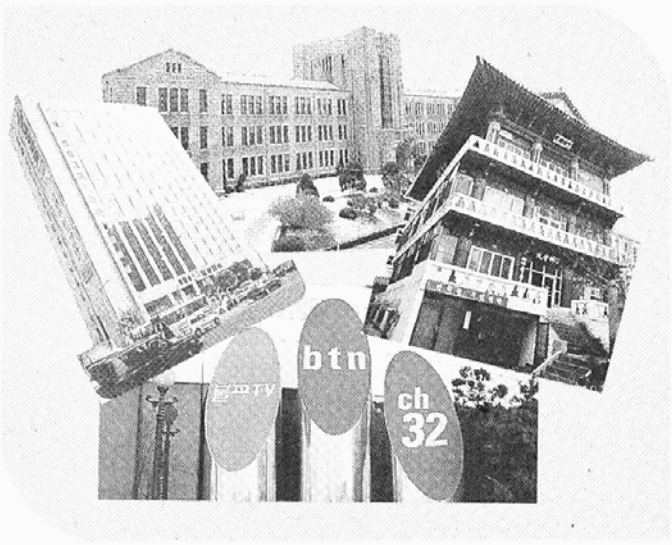
이에대해 법인관리법을 입안한 담당자들은 "종단의 삼보정재로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조계종지와 종통을 받들어야 하고 종단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재)선학원 (재)대각회 (재)불교방송 (주)불교텔리비젼 등이 법인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계종의 정관개정 요구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선학원측은 이미 "법인산하에 조계종이외의 종단소속 사찰이 등록되어 있어 정관개정은 실현불가능한 일이다"며 "종단에서 정관개정을 이유로 선학원소속 스님들을 징계할 경우 분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 불교텔리비젼측도 "불자들의 원력과 힘을 모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조계종이 관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법인관리법을 경가절하했다. 현실적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관리법의 적용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6월, 117회 종회에서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상정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중앙종회와 총무원간의 이견으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118, 119회 종회에서도 잇따라 유보된 바 있다. 당초 법인관리법은 종단 분규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법인들의 탈종단화 현상이 일자 개혁종단이 정재 유실을 막고 법인 상호간 공조체제를 위해 마련됐다.

교계 일각에서는 "종도들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졸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입법예고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이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처지에 놓여있는 선학원·동국대·불교TV·불교방송 건물.

정재유실 방지·법인공조 필요 제정
인사개입 등 불필요한 간섭에 반발

사찰·단체 수료증 제도화 해야

초·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 시행과 교계대책

각급학교 연계 봉사활동 다양화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내년입시에 종합 생활기록부를 입시총점의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의 경우를 보면 종합생활기록부(이하 종생부)를 40% 반영케 되는데 이중 교과성적은 80%, 출석 10%, 면접 5%, 행동 3%, 봉사 1%, 수상 1%를 반영하며 특성을 살려 수상경력중 효행학생을 일정정도 선발하고 교과성적반영 4과목중 윤리과목을 계열에 상관없이 전대학이서 평가키로 했다.

이와같은 선발방침은 각 대학이 교교 '종생부'의 과목별 학업성취도와 석차백분율을 표시하고 문장으로 기록된 주관적인 평가를 자율선발에 따라 입시전형에 반영이 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같은 종생부는 전과목을 합산하여 평균에따라 석차를 가름하는 기존의 생활기록부와 달리 각 과목별로 학업 성취도와 석차 백분율만 표시토록 돼 있고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특기, 특별, 단체, 봉사활동이 새로이 입시평가자료로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종생부는 특별활동상황에서 단체활동란에는 청소년교화연합회나 결성준비중인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등 각종 청소년 단체에서의 활동내용이 기록되며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았거나 추천을 받은자는 학교사정위나 성적관리위에서 심의 결정에 따라 1년에 1점의 봉사활동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학생회와 사찰봉사활동도 종생부에 기록돼 대학의 평가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와 연계가 안돼 봉사실적이나 단체지도 및 입상실적이 있더라도 종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되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초 중 고교학생회는 불교청소년단체의 가입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고교입시의 경우도 98년부터 종생부 봉사활동 점수가 입학전형시 총점의 8%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중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는 일손돕기, 위문, 지도, 캠페인, 자선 구호, 환경 시설보전, 지역사회개발활동 등 7개 영역이 제시되어 불교관련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관심이 요구된다.

전국의 1백45개 불교복지시설중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계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9곳, 아동복지시설 17곳, 부랑인복지시설 3곳, 사회복지관 29곳, 병원 11곳등 총 6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불교청소년단체는 불교복지단체들과 결연을 갖는 등의 노력과 불교복지시설도 타종교보다 복지단체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불교종립학교나 불교학생회를 겨냥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의뢰하는등 적극적으로 불자학생들을 수용하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또 사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장려된다. 학생들이 전통사찰 주변을 깨끗히 청소하면 환경시설 보전활동과 문화재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찰에서도 종생부를 주관하고있는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선정하는 봉사대상목록에 기재되도록 통보하고 각 사찰단위에서도 사찰주변 청소, 부처님 오신날 봉사활동 확인서나 수련대회 수료증 발급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은 학점을 인정받아 종생부에 기록됨으로 불자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교계 1급 지도사(현재 7명)들도 불자학생들을 수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교계차원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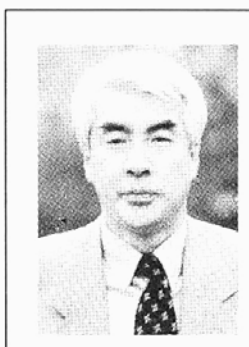
시 론

정직한 목소리가 그립다

4·11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의 색깔 드러내기로 분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후보자들간의 경쟁도 가히 필사적이다. 언제나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국충정을 담은 고담준론에 상대방을 헐뜯는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세는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언어의 두가지 기능

인간의 언어에는 두가지 기능이 있다. 지성적 언어는 상대방에게 관조의 여유를 주며 차분하게 한다. 그러나 감성적 언어는 상대방을 흥분시키며, 자극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숨겨진 야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곤 한다. 불행히도 정치판의 언어는 후자에 속한다. 특히 대중강연이라는 속성때문에 남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일에만 몰두할뿐, 지성적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감성에 호소하다가 보니 혈연, 지연, 동창 등의 공감대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언어의 추악성과 한계성을 냉정하게 비판할 시점이다. 〈도덕경〉에서 말한대로 "아름다운 말은 믿음성이 없고, 믿음성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은 법이다(美言不信 信言不美)."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느 특정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무종교일 자유도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심정적으로 그가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비지성적인 태도이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불교인들의 여당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 이유가 대통령의 종교 때문이라는 것은 퍽 시사적이다. 청와대 예배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육군법당 예배의 일 등으로 불교계의 반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나는 연전에 불국사 법당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뻣뻣한 기립자세를 영 잊을 수가 없다. 초대된 일본총리는 합장한 채 머리를 숙였고, 우리 대통령은 차렷자세에서 목례를 했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토함산의 어른은 부처님이다. 부처님께 합장한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당시의 일본총리는 독실한 가톨릭신자였다. 불교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종이 아니다. 자신에게 개신교가 소중하듯이, 불교인에게 불교는 소중하다는 평범한 인식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이제 눈길을 불교계 내부로 돌려본다. 온통 감성적 흥분만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개신교 대통령이 나왔다고 불교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불교믿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예수믿는 이들이 집단으로 해외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잖는가.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현실정치 참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치기준과 현실적 정치풍토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의 정치참여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성인군자들만 뽑으면 된다. 종교는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계도할 뿐이지, 꼭 특정종교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돈안드는 선거로 치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앞서 선량후보들의 유세가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업(口業)이다. 불교의 가치기준으로 말한다면 엽은 상(相)의 상자이다.

즉 스스로 지은 허물은 결국 스스로에게로 되돌려지며 그 업은 또다른 결과로 전이(轉移)되는 법이다. 따라서 공명선거란 돈봉투를 안 받고, 향응을 거절한다는 물리학 행위뿐 아니라, 말의 보석을 가리는 혜안을 지녀야 한다는 뜻도 된다.

진짜와 가짜 가리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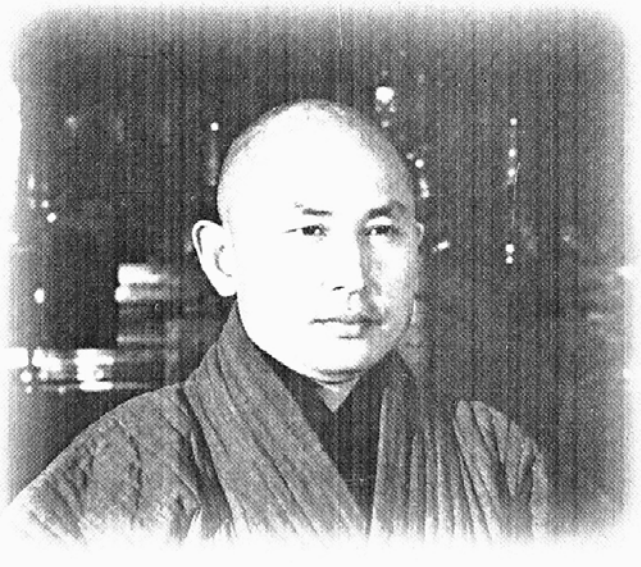
불교인들마다 감성에 치우쳐서 판단을 흐린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보나마나이다. 불자란 반야(般若)를 지닌 이들을 가리킨다. 반야를 세속적으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힘이다. 가짜란 언제나 진짜처럼 보이는 법이다. 그뿐 아니라 감언이설과 의젓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현혹하기 마련이다. 마치 세균이 음습한 곳으로 침투하듯이 인간이 가진 나약한 심리, 병적 집착, 보상심리 등을 파고 들면서 끝내 최면처럼 진짜로 둔갑해 간다. 자신의 죄업은 스스로가 받는다고 해도 그것에 현혹된 우리 또한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중의 업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대지를 탁오(濁惡)의 지옥으로 만들어 갈 뿐이다.

정직한 목소리가 그립다. 의연하면서도 겸손한 참 선량을 찾자. 이번 선거는 불자들의 성숙된 의식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證明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靈鷲山中 九龍吐水

석지형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민족평화통일 · 2002년 월드컵한국유치 ·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영축산 통도사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 · 복지 · 장학불사의 후원을 위해 지난 한 겨울동안 한점한점 기도하며 밤새워 그려낸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3. 21(목)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 2층 전시관

• 불교문화대강좌 : 3. 21 ~ 23 오전11시 (10층 대강당)
• 작 품 전 : 3. 21 ~ 3. 24 매일 오전10시~오후7시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

- 초 청 법 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서윤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류시화 선생(시인)
- 불자연예인 공연 : 김병조(방송인), 김흥국(불자가수회장), 김혜련(가수), 두레 外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길상도 엽서세트, 손염주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금강불교아카데미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현대불교신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TEL:(051)621-8548~9 FAX:625-2741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32

• 서울 소림불교 장학회 • 창원 구룡사신도회

법회 안내

백련사 포교원(02)547-826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불교기초교리강좌 화 오후2·7시

관음사(0391)43-2985

통합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강릉명주 거사림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5시
불교청년회 매주 화 오후7시
강릉불교청년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불교연합회 매주 수 오후6시
불무리회 매주 토 오후6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여교사불심회 매월 1일 오후7시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문수사(0396)671-8889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월 둘째·넷째주 일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월18일 오전11시

통도사 부산포교원 (051)816-2241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화요법회 매주 화 오후7시
청년법회 매주 목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403-7077

정기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한마음요전법회 금 오전11시
청년회 1부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청년회 2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다일시생법회 토 오후7시30분
십릉회법회 첫째 목 오후7시

보현사(053)254-6966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30분
부처님 인등기도 8일(음)오전10시

대구 구도회(053)654-8533

경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금요강좌 매주 금 오후7시
좌선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어린이·중등법회 일 오전10시
해인사 지족암철야정진 넷째 토

성화사(053)623-8334

감사헌공법회 수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거사림 부부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헌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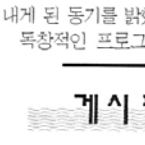
'맑고 향기…' 부산대법회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주)은 오는 28일 오후1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맑고 향기롭게 부산 경남모임(회장 홍교)' 주최로 법회를 봉행한다.

23일 천안 천불암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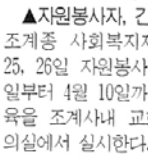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오는 23일 오전11시 천안 천불암에서 개최하는 '큰스님 초청대법회'에 참석, 법문을 한다.

태이영가 천도 사경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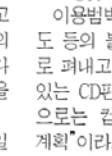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오는 4월 5일 오전10시 쌍문동 금강사에서 태아(낙태)영가 천도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4월 25일. 02)993-3744

장호원·이리서 설법강의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는 오는 22일 장호원 불교회관에서 법문하고, 28일 이리 불교대학에서 강의한다.

대전 청소년 봉사센타 개원



종실스님(연화사 주지)은 오는 20일 연화사 내에서 '대전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갖는다.

이리 불교합창제 출연

지범스님(서귀포 극락사 주지)은 오는 23일 오후3시 이리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불교합창제에 특별출연해 '부모은중경' '님께로 가오니'를 공연한다.

전통불교 의식교육

성원스님(태고종 선해정사 주지)은 오는 27일부터 선해정사에서 전통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한다. (0636)52-3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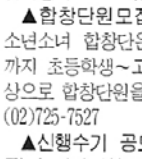
사회집 봉정·주교퇴임식

인인정대종사(진각종 홍원심인당 주교)는 오는 21일 경주 조선호텔 대연회장에서 사회집 봉정과 퇴임식을 갖는다.

'우리는 선우' 수련회

박광서교수(우리는 선우 공동대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은해사 기기암에서 우리는 선우 수련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부산지구 30돌 법회



이상대회장(대불청 부산지구)는 오는 30일 오후6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서울시 녹색 환경위원 선임

유정길씨(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는 최근 서울시 녹색환경위원회 정책분과위원으로 선임됐다.

범종불사 기공식 봉행



유명선씨(호국용마사 군법사)는 지난 10일 호국용마사 법종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범종은 8백관 종각 4평 규모로, 오는 5월 12일 완공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신임사장 조해형 씨

지난 12일 신라호텔서 열린 제21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신임사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된 조해형씨(62·나라기획 회장).

신임 조사장은 경기고를 나와 미국 MIT경영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주)쌍용, 쌍용제지 대표이사와 국민대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독실한 불자인 조사장은 평소 치밀한 업무스타일과 곰곰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독실한 불자로 우리는 선우, 한국불교 재가회의, 교불련 등에서 활동해온 부인 김인숙여사(국민대 교수)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독실한 불자… 쌍용사장 역임등 경력 다채

부산 자비사에서 첫 설법

양동수씨는 오는 22일 오후2시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에서 법사로서 첫 설법을 한다.

양씨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 21년만에 출소했는데 교도소에서 통신과정으로 법사자격을 득했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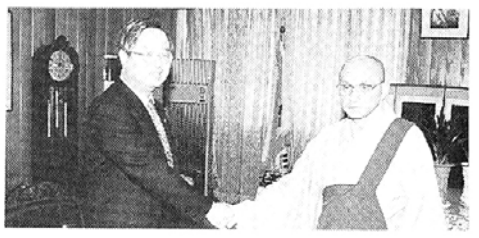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중앙상임감찰 동산스님(수종사 주지), 성호스님(고운사 호법국장)

교계대표와 문체부장관 간담회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들은 지난 14일 김영수 문체부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종무행정의 균형있는 집행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의 혜초 운덕총무원장과 락혜통리원장, 송산 중앙승가대학장, 태능 불교TV사장, 원산 조계종교육원장, 성타 포교원장, 정휴 불교신문사장, 법륜 관음종종회의장등이 참석했다.

월주스님 安교육장관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2일 안병영교육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제도는 특정종교만을 위한 제도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안장관은 공정회등을 통해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 불교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TV 창사 2주년 기념식



불교TV(대표이사 태융)는 지난 8일 창사 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의 총무원장과 지도지급 스님,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일스님을 비롯 이계진, 이정부, 이영숙 아나운서, 김병조씨등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입학식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입학식이 지난 11일 동 연구원 지하강당에서 입학생 41명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지관스님(가산佛 이사장) 원산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임창순(태동고전연구소장)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참석했다.

석탑 입체영상도록 펴낸 이용범·이종민 씨





평면으로 보이는 석탑이 색안경을 끼면 주위 배경과 함께 선명한 입체영상이 되어 나타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입체영상도록 〈한국의 석탑〉(삼미미디어 펴냄)을 지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로봇이반기술개발실 이용범박사(36·사진 오른쪽)와 이종민박사(34·팀장)는 6개월여의 산고끝에 책을 완성하면서 "평면영상형태의 기존 시각정보로는 우리 석탑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을 수 없었다"며 책을 내게 된 동기를 밝혔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시일에 출간된 〈한국의 석탑〉은 적·청색 필터로 만들어진 색안경을 통해 입체영상을 구현해 내는 색분리방식(ANaglyph)을 채택하고 있다.

이용범박사는 "석탑이외의 불상 부도 등의 불교조형물도 입체영상도록으로 펴내고, 컴퓨터로 입체사진을 볼 수 있는 CD판 입체영상을 개발해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가상박물관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

"컴퓨터 가상박물관 만들 계획"

교수불자연합회 새회장 오상환 교수



"교수불자연합회를 활성화하여 불교발전의 실질적인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일 정기총회에서 한국 교수불자연합 회장에 선출된 오상환교수(인하대 수학과). 오회장은 침체된 교수불자연합회를 정비하여 창립때의 정신을 되살려 힘차게 새출발 하겠다고 말했다.

89년에 창립된 교불련은 총회원이 7백3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동안 활동이 부진했었다.

"교계의 지능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교불련 8년을 평하는 오회장은 불교적인 연구와 토론을 정례화하고 지역조직을 살리는 등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교계의 현안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회장은 89년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수국사 신도로 한국불교재가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원〉

"토론등 정례화로 내실 기할터"

게시판

▲정기총회=실천승가회(공동대표 청화·지선)는 오는 22일 오후2시 보광사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348)943-1521

▲자원봉사자, 간병인 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25, 26일 자원봉사자 교육,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간병인교육을 조계사내 교화사무국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02)723-5101

▲수화통역반 모집=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는 수화통역반을 개설, 오는 31일까지 청각장애인 포교나 수화통역 봉사를 원하는 자로서 수화 중급반 수료 후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38-5973

▲연꽃케익 세미나=대한불과회(회장 정관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제과기술학원에서 충청·전라·경상도 제과인을 대상으로 연꽃케익 세미나를 개최한다. (0417)552-6983

▲시민선방 개원=(재)선학원 중앙선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시민선방을 개원하고, 선수행을 원하는 불자를 모집한다. 해제는 5월 16일. (02)732-3327

▲불교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이순규선생(남도불교문화연구회장)의 안내로 오는 24일 관촉사 은진미륵, 능산리 고분,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지를 답사한다. (062)228-9098

▲합창단원모집=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단은 오는 27일까지 초등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02)725-7527

▲신행수기 공모=월간 〈구룡〉이 지령 100호(96년 6월호)를 앞두고 신행수기를 공모한다. 생활속의 신행담을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4월 15일까지. (02)576-4504

이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지난 10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계동 101-12로 이전.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02)765-6324

캄보디아 불교지원금 전달

설조스님을 비롯한 불국사 본말사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대승불교종단의 종정 텝퐁스님을 예방하고 승려교육기관과 사찰건립을 위한 지원금 1만달러를 기증했다. 설조스님은 "캄보디아 불교중흥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사주지 스님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설조스님(뒷줄 왼쪽서 세번째)과 그 옆이 텝퐁스님.

대한불교 해동종 임원 공고

종정		석봉
원로원	원장	인현
	위원	경호, 선기, 대경, 순주, 상근, 해상, 덕균, 용우, 제형
총무원	원장	송산
	부원장	법성
중앙종회	의장	성타
사정원	원장	법봉
연수원	원장	선기
포교원	원장	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경

서울	종무원장	무주
강원	종무원장	대근
경기(인천)	종무원장	담원
충북	종무원장	법운
충남(대전)	종무원장	경희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원
경남	종무원장	백담
전북	종무원장	혜원
전남	종무원장	혜암
일본특별	종무원장	평일

◆ 본종과 함께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나갈 스님들의 등록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본 종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원효대사를 종조로 선교율을 수지선양하며 견성성불·전법도생함을 종지로 본종의 소의경전은 화엄경으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의 모체로써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으로 도생의 문을 열어서 교화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해동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TEL(0331)281-0606, 262-1577, FAX 262-1577

"아끼고 다듬어 말하자" 늘 되새겨

산문밖의 禪

방송인 이계진 씨



생활처럼 꾸밈없이 방송진행 '보는 사람 편안'
"차맛 같으면서도 항상 새롭기 위해 노력해요"

"아나운서는 방송쟁이입니다. 쟁이에게는 쟁이의 정신이 있지요. 맡은 일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고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 즉 프로가 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빼어난 미남은 아니지만 사람좋은 웃음이 늘 떠나지를 않는 아나운서 이계진.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항상 정겹다. 누구에게나 넉넉함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출연료 btn 주식공모

그의 방송이 그렇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팬이 많다. 맏아들같고 삼촌같고 친구같고 연인같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일상생활과 방송일에 별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의 방송을 본 이들은 정말 그렇다는 동감을 표시한다. 삶에 꾸밈이 없기에 방송일에도 꾸밈이 없다. 그냥 물 흐르듯이. 산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자연스럽다.

그는 방송생활을 오랜 동안의 취미인 다도(茶道)에 곧잘 빗대어 말한다.

멋모르고 시작한 것도 똑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이 가는 것도 같다. 정이 가는 만큼 더욱 정성을 들이고 또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똑같다. 방송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늘 다짐한다. 차맛과 같은 모습을 잃지 말지고….

"꾸밈이 많은 기계적인 방송은 생명력을 잃은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계진씨. 사람평가를 좀처럼 않는 법정스님마저 그에 대해 '참 맑다'는 한마디로 평하고 있다.

지난 73년 KBS 공채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계진씨는 올해로 방송일에 뛰어든지 24년을 맞았다. 그동안 그가 진행해온 프로그램은 무척이나 많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를 진행하던 풋풋하고 정감어린 모습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11시에 만납시다〉 〈가정저널〉 〈백세퀴즈쇼〉 〈이계진의 아침마당〉등과 요즘은 〈한밤의 TV연예〉 〈슈퍼TV 세계가 보인다〉와 같은 연예 오락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어떤 프로를 맡겨도 오래 된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는 그의 진행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굳은 신뢰감을 준다.

오랜 방송생활덕분에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진행, 인간미가 넘치는 자연스런 진행이 그것이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많은 칭찬의 말들을 듣지만 그 말이 주는 의미 역시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고 목수가 나무를 깎듯 지혜있는 자는 자신을 다듬는다.

〈법구경〉에는 평소 자기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위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자기자신이 그것의 중심이 되어 수련해 나가는 과정이 쌓여서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계진씨는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늘게되는 요령 피우기에 빠져들까 늘 조심한다.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꼭 지켜왔다. '뱃사람은 뱃전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을 가슴속에 꼭꼭 지니고서 이따금 시간이 남을 때도 출연자들, 스태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용모나 목소리 같은 기본적인 자질 외에 보편적인 가치관과 건강한 판단,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줄 아는 눈,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있는 자세를 방송인은 지녀야 합니다" 라는 이계진씨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송인이 되기위해 지켜야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는 주위로 부터 끊임없이 정치입문의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나의 길은 방송인으로 사는 것 뿐이라는 생각으로 정치입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다.

정치입문 유혹 뿌리쳐

"사실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에 제자신을 잃어버릴뻔 했지요. 하지만 법정스님께서 '거사가 정치하게 되면 차맛을 잃어버릴 것이오'라는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명예, 권력이 있는 화려한 생활보다 차맛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이 인생의 참맛이란 것을 그는 오린 다도(茶道)의 행으로 깨닫고 있는지도 몰랐다.

"말의 힘에 대해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한번 뱉어진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주안에서 떠돌며 그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방송한 소리의 잔향도 계속 우주의 허공을 날아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끼고 다듬어서 말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비록 흔적없이 사라지더라도 어느 한 순간만은 그의 말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삼라만상에 가득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러하듯이.

이계진씨는 얼마전에 하나의 작은 불사를 단행했다. 다름아닌 그동안 불교TV 〈나의 삶 나의 불교〉를 진행하며 받은 출연료를 불교TV 3차주식공모에 고스란히 내놓은 것이다.

"방송의 어려움을 누구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하는 불교TV에 참여한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출연후 받은 돈을 불교TV에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불교TV는 바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이시고, 또 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불법을 생생하게 배우고 또 배워나가는 수행의 도량이니까요."

이은자 기자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49재는 왜 지내는지요

문 사람이 운명하면 7일 단위로 재를 지냅니다. 그렇게 일곱번, 49재를 올리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지상·경기 이천 대월면〉

답 49재, 칠칠일, 칠칠재를 다른 말로는 중음(中陰)법요라고도 합니다.

약사여래본원경 등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즉 중유(中有)·중음의 기간이 49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시기엔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영혼을 또다른 형태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업식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영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깨달은 이가 영식을 본다할 때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 생전의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없어져도 생전의 의식차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다 밝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게 천도의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눈 뜬 사람이 장님을 이끌어 주는 도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도를 한다할때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도리를 알아 부처님이나 조상님이나 자신이 다 한마음인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불켜놓고 기도드리는 것만으로는 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법인으로 표현됩니다. 제법이 무아요 제행이 무상이니 천도재 역시 연기-공의 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상님 좋은데로 가십시요'가 아니라 '조상님, 조상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둘이 아니오 제 마음과 둘이 아니니 그 도리를 깨우치도록 하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조상의 중생적 모습만 보고 참근본의 모습-부처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참다운 천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해둘 것은 요즘와서 천도재가 형식에 치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천도재를 해야할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될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찰에서 무조건 천도재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천도재를 할때도 지극한 마음이 앞서야 할 것을 천도비용이나 상차림이 우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천도재는 오히려 조상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공부 열심히 했다면 천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미륵불이 오신다는데…

문 경전에 의하면 말법세상 어느 때인가 미륵불이 나오셔서 세상을 구제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세웅·강원 춘천시 신북읍〉

답 미륵이요? 미륵 또한 이름입니다.

동방에는 아촉불이 있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있고 사바세계엔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국엔 지장보살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구나 깨달으면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아촉불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중생을 잔뜩 안고 살며 부처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천도를 부탁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텐데…' 하더랍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입니다.

찰나에 불을 켜면 그대로 아촉불 아미타불이고 찰나에 불을 끄면 중생입니다. 그러니 불이 꺼졌더라도 다시 쓸 일이 있으면 불을 켜듯이 늙어 죽었으면 다시 어린애로 태어나 어른이 되어야 하겠지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왔고 애가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미륵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기하기를 '너는 후생에 부처가 되어 그 이름을 미륵이라 할 것이니' 하셨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마음도리를 밝히고자 정진하신다면 부처님께서 수기하시기를 '너는 후생 어느 때에 부처를 이뤄 그 이름이 무엇일 것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부처되는데는 신분이나 성별·학력같은 자격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라고 어찌 부처되기를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누구라고 또 부처되기를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돌고 돌아 미륵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륵부처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그 미륵부처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제할 인연을 기다리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상에 얽매인 것이요 가르침과는 십만팔천리나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륵불출현의 수기는 어린 아이가 자라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미륵불이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사람 가운데 아는게 너무 많아서 그만 이론의 탯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탄생했다고 할 것이니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내려 놓아야 합니다. 사량분별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미륵불 도래의 인연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닫고나면 스스로 뜻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법음·법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법,도량석,쇳송,상단예불, 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요잡바라,천수바라,도량게,다게 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30명(선착순)
■교육기간: 3개월(각 과정)
■원서접수: 1996년3월18일~4월23일
■개강일시: 1996년4월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중국명문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연수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간 : 8박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원 : 15명 이내
·출발일 : 1996년 3월 21일 (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 - 2026 · 2027
511 - 2028 · 1080
FAX. (02) 511 - 1080

불교사상,교학,수행,신앙지도 및 불교사상과 현대사상과의 접목을 통하여 불교사상의 진수를 맛보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불교교육의 전당!

바른불교/쉬운불교/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전화 02-582-1080 / 02-522-2841
팩스 586-1950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교육과정·
제1기 실천적 불교사상 불교의 근본사상과 불교의 인생론 생활속에 불교의식
제2기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사상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 영원한 자비의 교화체계
제3기 불교사상의 연기론 체계 불교사상의 실상론 체계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불교사
제4기 역사의 변동과 불교사상의 변천 선불교의 핵심과 선맥의 흐름 중관과 대승사상의 체계
특 강 불교수행의 원리와 그 실천방안 불교의 교육사상과 상담원리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불교의 세계관 현대문명의 위기와 불교적 대안 수행과 통일로서의 신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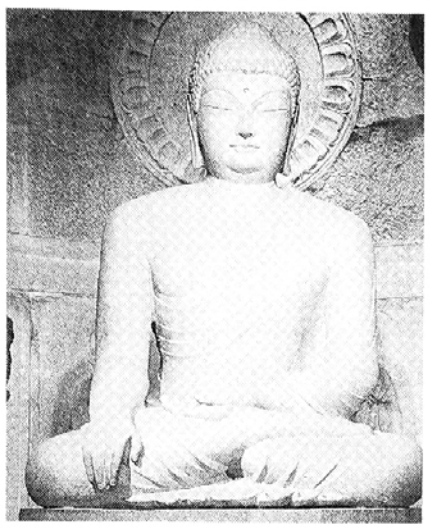
·입학대상·
·모집인원 : 주간-50명 / 야간-50명
·입학자격 : 바른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 (연령, 학력 제한없음)

·등록 접수 문의처·
·접수기간 : 3월 15일 — 3월 31일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1장
·접 수 처 : 각 지역 정토불교대학 교무과
각 기는 개별모집, 초보자도 모든과정 동참가능

·강사·
법륜(스님/정토불교대학 학장)
보수(법사/중앙불교교육원 원장)
정수(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지장(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묘당(법사/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
현명(법사/정토수련원 지도법사)
덕성(법사/정토불교대학 교육담당 법사)
법운(법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무변심(법사/한국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묘수(법사/월간 정토 주간)

·전국 정토불교대학 일정 및 연락처·
서울(홍제) 02-379-1650/4월12일-8월30일 매주 금요일
서울(서초) 02-522-2841/2월8일-7월24일 매주 목요일
부산 051-557-2746/1월4일-6월27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주 0561-772-1960/4월9일-7월2일 매주 화요일,금요일
대구 053-761-5970/4월1일-6월19일 매주 월요일,수요일
성남 0342-722-1760/4월3일-8월20일 매주 수요일
대전 042-534-9166/4월12일-8월12일 매주 월요일

주간 / 오전 11시-1시 야간 / 오후 7시30분-9시30분



◇신라 경덕왕 15년에 창건된 석굴암은 우리문화의 찬란한 금자탑인 동시에 민족정신의 응결체로 인정받고 있다. 석굴암석굴(국보 제24호)은 예술성에 있어서 전세계 종교예술사상 가장 탁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석굴암을 국보 1호로"

예술미·문화가치 뛰어난 세계적 보물

교계·학계등 '남대문' 대신 재지정 주장

문체부가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평가작업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를 '국보 1호'로 재지정해야 하며, 국보1호로 경주 석굴암이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가 교계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보 1호로 지정돼 있는 남대문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5백3건의 문화재를 최초지정한데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괄 재지정되면서 '국보1호'가 됐다는 것. 그러나 예술미나 그 가치로 보아 '국보중의 국보'라는 상징적 의미의 국보 1호로 보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당시 조선총독부가 남대문을 제일 먼저 조사하면서 조사순위에 따라 '1호'라는 분류번호를 부여했음을 감안할 때 국민정서가 갖는 '국보1호'의 이미지에는 크게 모자라며, 따라서 뛰어난 예술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석굴암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영우 서울대규장각관장은 "국보1호는 마땅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여야 한다"며 석굴암을 꼽았다. 석굴암은 지난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 가치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은 "일본은 한국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국보1호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의 가치와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볼 때 석굴암이 국보1호로 가장 적합하다는데 동의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불교계도 마찬가지.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재위원으로 있는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 역시 '국보1호감'으로 석굴암을 추천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 가치적 측면 외에도 우리의 얼을 담은 민족정신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은 "동양의 삼보로 불리는 석굴암이야말로 한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라며 이번 기회에 석굴암의 국보1호 지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원효 '발심문' 한국 최초 청규서

오형근교수 논문서 밝혀 중국청규 관계없이 단독 저술



◇오형근교수

한국의 청규(淸規)사상은 신라시대 원효대사(616~686)로부터 시작됐으며, 원효대사의 발심문(發心文)은 한국적인 청규사상의 최초저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형근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최근 발간된 〈불교대학원논총 제3집〉에서 '원효대사와 지눌선사의 청규사상' 논문을 통해 원효의 청규는 중국의 청규사상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저술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백장선사(720~814)가 대승의 계율을 근본으로 한 선원청규를 만들고 그 청규는 백장선사 후 약 4백년 후에 고려시대 구산선문이 성립된 시기에 도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한 오교수는 이를 도입한 사람은 한국과 중국의 문헌적인 청규사상을 비교해 볼 때 지눌선사(1158~1210)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백장선사가 대승계율이라고 말한 유가론과 영락경, 범망경이 신라에 이미 도입돼 원효대사의 '발심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정한 한국의 청규사상은 원효대사(616~686)가 지은 발심문에서 시작했다고 규정했다.

오교수는 또 원효의 청규사상은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고 계율을 중시했으며 수도정신을 중심으로 한 수행사상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현재 강원에서 승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발심수행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불교의 청규사상은 원효의 '발심문'으로부터 시작해 고려불교에 백장청규사상이 도입되면서 지눌선사에 의해 명실공히 한국 선원의 청규사상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이후 고려 운묵선사가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이라는 청규사상을 보급해 선원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으며, 야운선사도 자경문을 저술해 선원의 청규사상에 보탬을 주었다고 오교수는 설명했다.

〈우〉

"성보보존 국민 문화의식 관건"

홍윤식교수 주장 '신앙' '민족문화' 조화 필요



◇홍윤식교수

"가장 바람직한 성보보존방안은 사원 본연의 기능위에 승속을 막론한 모든 국민이 성보를 성보로서 인식하고 숭상하게 하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이다."

홍윤식교수(동대 박물관장)는 최근 발간된 〈화두와 실천〉 제2호에 기고한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이해와 보존방향'이란 글을 통해 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불교문화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미술이 종교미술로서 갖는 특성과 종교로서의 불교가 철학·예술·과학 등과 갖는 차이점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철학과 과학이 보편타당한 가치 규명과 사실에 일관하는 법칙의 보편적 지식탐구에 그 목적이 있다면 예술은 진실을 찾고 종교는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문화재와 다른 사찰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방법도 특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으나 신앙의 대상임을 강조하여 민족 문화예술의 의미를 상실할 때의 문제점과 사찰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했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홍교수는 설명했다.



◇영암 용암사지 3층석탑 복원현장서 발견된 고려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좌상.

고려후기 금동보살좌상 발굴

월출산 용암사지서 백자사리호등 유물 20여점 출토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의 용암사지 3층석탑복원 현장에서 고려후기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좌상과 사리함이 발견됐다.

순천대박물관은 지난 11일 용암사지 석탑 해체·복원작업을 하던중 석탑기단 아래에서 금동보살좌상과 사리 17과가 들어있는 백자사리호 등 20여점의 유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금동보살좌상은 높이 13.6㎝, 너비 7.8㎝로 좌대모형이 3각형에 연화무늬가 상호대칭형으로 새겨져 있고 왼손에 둥근 구슬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고려후기때 원나라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말 소금동불 출토

경북 봉화 축서사

경북 봉화군 축서사에서 신라말기 것으로 추정되는 소금동불과 기와등 귀중한 문화재가 출토됐다.

동국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최근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축서사 발굴에서 금동불입상 1구와 신라·고려·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다수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축서사 대웅전 뒷편에서 출토된 소금동불상은 전체 높이 5.2㎝에 신체높이 3.9㎝ 두께 1.3㎝로 8각원형 연꽃대좌 위에 서 있는 입상으로 모양은 시무의·여원인의 수인을 짓고 가슴께 U자형을 그린 세련된 옷주름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 소금동불상은 보물 제995호로 지정된 축서사 비로자나불과 비슷한 형태여서 9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표영씨 배첩장 지정

문체부, 승전무·입사장도 인정

문화체육부는 9일 배첩장(褙貼匠·서화나 서책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처리하는 기능)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2호로 신규지정하고 김표영씨(70)를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문체부는 '배첩'이 오늘날 '표구'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조도화서의 직책명인 '배첩장'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이미 지정된 제21호 승전무(勝戰舞)에 한정자씨(53) 엄옥자씨(52)를, 제78호 입사장(入絲匠·그릇표면에 홈을 파고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 홍정실씨(49)를 추가로 인정했다.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광주시 문화재 21호 지정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유촌동 석조여래좌상을 시 문화재자료 21호로 지정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고려불상의 전통을 간직한 조선전기의 석불이다.

유하사

용화전

煩惱斷相福智圓(번뇌단상복지원)
位極一生補處尊(위극일생보처존)
寂光土中不留意(적광토중불류의)
放大光明助佛化(방대광명조불화)
宏見七變之言音(굉견칠변지변음)
普化五乘之聖衆(보화오승지성중)

번뇌를 끊으시고 복덕과 지혜 원만하시니
지위는 부처님 보좌하는 높은 자리에 계시고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열반정토 속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대광명을 놓으시어 부처님 교화를 돕고 계시네
널리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근기에 따라
오승의 성중을 교화하시네.

해설 유하사는 경북 안동군 와룡면 와룡산에 있는 고찰이다. 산이름이 암시하듯 이 산은 용이 누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아니라 용과 관련된 전설도 많다. 유하사란 절의 이름도 여름에 용이 내려와 사람과 더불어 노닐었다는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중생 교화하는 미륵불 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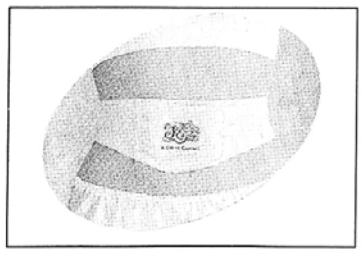
용화전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당우다. 〈대예찬〉의 한 구절인 이 주련의 내용은 미륵불의 위신력 중에서도 부처님을 도와 중생을 널리 교화한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미륵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새로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 구절에 나오는 '일생보처'란 말은 앞의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이란 뜻으로 부처가 될 후보자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미륵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부처님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일생보처불로서의 미륵과 내세불로서의 미륵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무튼 미륵불은 부처님의 보처불로서 법신불의 세계인 적광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세상의 다양한 중생을 근기에 따라 보살피며 교화하고 있음을 이 예찬문은 강조하고 있는데 끝 구절의 오승은 인(人) 천(天)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을 말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멀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일러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얻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일러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유일신 부정 … 생의 본질 탐구

보르헤스의 ⑧ 불교강의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① — 산키아학파

인도 육파철학중 하나 '數의 철학'
우주는 물질과 영혼 '이분법 사고'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불타의 탄생지가 카필라성(城)이라고 알려져 내려오는 사실속에는 산키아학파의 창시자 카필라(Kapila)의 사상이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카필라성(城 바스투)은 사실상 '산키아학파의 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 불타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산키아학파의 교리를 일견(一見)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불교신앙이 꽃을 피운 후부터 지금까지 카필라성은 많은 불교인들이 순례하는 성지(聖地)가 되었다. 당(唐)의 현장법사도 7세기 초반 카필라성의 유적을 답사하고 귀국하여 중국에 외부세계의 현실을 부정하는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을 도입하였다.

인도 육파철학(六派哲學)의 하나인 산키아(Sankhya, 혹은 상캬로도 발음함)는 산스크리트어로 '수(數)' 혹은 '숙고(熟考)'를 의미하며, '수론(數論)'으로 번역된다. 가르브(Garbe, 프랑스 불교학자)에 의하면, 바라문 승려들이 카필라의 교리가 지나치게 세분(細分)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비꼬기 위하여 '수(數)의 철학'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것이 그만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산키아는 2원론이다. 우주에는 태초에서부터, 복합물질인 프라크리티(Prakriti)와 무수한 수의 개별적이고 비물질적인 영혼인 푸루샤(Purusha)가 있다고 믿는다. 프라크리티는 3가지 요소(gun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요소는 사트바(sattva)로서 객체속에서는 가볍고 빛나는 것이 되고, 주체속에서는 안락과 행복이 된다. 두번째 요소는 라자(raja)로서 객체에서는 강하고 활동적인 것이 되고, 주체에서는 열정과 공격성이 된다. 세번째 요소는 타마(tama)인데 객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것이 되고, 주체에서는 무관심과 꿈이 된다.

첫번째 요소는 신(神)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두번째 요소는 인간세계를 지배하며 세번째 요소는 동식물과 광물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나 고통은 그 사물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꽃에 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다양한 색깔들의 원인도 이 요소들에 기인한다. 사트바가 강하면 노란색이나 흰색이 되고, 라자가 강하면 붉은색이나 푸른색이 되며, 타마가 강하면 회색이나 검은색이 된다.

푸루샤(개별적 영)들은 물질과 결합하여 생물(生物)이 된다. 각각의 사물은 물질적 육체와 아주 섬세한 재료로 구성된 심리적이고 영적인 육체로 나뉠 수 있다고 믿는다.

푸루샤는 옮겨 다니기 위해 몸이 필요하며, 영혼은 있으나 몸이 불편한 지체부자유자에 비유된다. 프라크리티는 영혼이 없이는 보고 느낄 수 없으며, 몸은 있으나 볼 수 없는 장님에 비유된다. 물질적 육체는 인간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지만, 심리적 육체는 소멸하지 않고 영혼과 함께 윤회한다.

이 섬세한 심리적 육체는 산스크리트어로 링가(linga)라고 불리며, 마누스(manus, 중심기관), 분별지(分別知), 개성(個性)의 원리(즉, '나는 말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만진다, 나는 죽는다' 등 '나'라고 생각케 하는 환상) 등 1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산키아학파의 학자들은 동시적(同時的)인 지각(知覺)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지각은 무한소(無限小)의 지속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색깔과 소리의 지각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물질적인 영혼은 사건의 행위자가 아니라 관객이며 목격자이다. 영적 육체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깨어진다. 영혼과 두 육체(물질적 육체와 심리적 육체)는 상호 분리된다. 심리적 육체는 첫번째 요소인 사트바의 도움과 수도(修道)를 통하여 이 확신에 이르른다. 몸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절대적인 무의식의 경지에 도달한다. 경전에서는 이 상태를 영상이 비치지 않는 빈 거울에 비유한다. 이 무의식은 단순히 의식의 상실이나 배제가 아니다. 영혼은 이전에 생활이나 꿈의 목격자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깊은 꿈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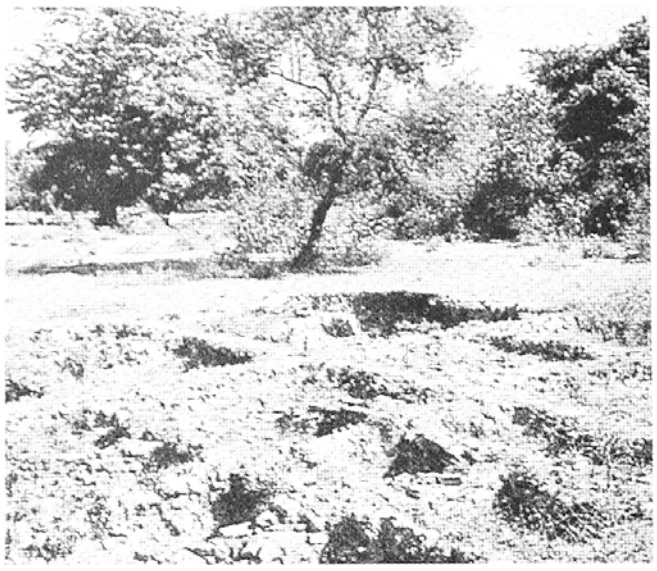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생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라는 논리를 환기시키기 위해 산키아학자들은 아름다운 비유를 든다. 무용이나 연극공연을 보러가면 우리들은 흔히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같은 착각을 한다. 우리들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그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컨디션을 함께 한다. 이 친밀한 동거(同居)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곧 그 사람이라고 믿는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프랑스의 대문호(大文豪) 빅토르 위고는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자서전 제목을 〈그의 생의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빅토르 위고〉라고 붙였다.

인도의 여타 철학체계처럼, 산키아학파도 무신론(無神論)이다. 그러나 바라문 승려들은 이것을 가지고 산키아학파의 정통성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인도사람들 사이에서 정통성은 인격신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옛 기도(祈禱)와 의식(儀式)과 송가(讚歌)를 모은 베다(Veda) 경전을 숭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산키아학파의 무신론은 그리 공격적인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한 유일신(有一神)은 부정하지만, 민간신앙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인정하였다. 가르브(Garbe)는 산키아 경전의 한 귀절을 인용한다.

"신(神)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신은 자비신으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해(苦海)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락탄치오(Lactancio)도 에피쿠로스(Epicuro)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만일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능(無能)한 존재이다. 만일 할 수 있는데도 원치 않는다면, 그는 사악한 존재다. 만일 원치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면, 그는 사악하고도 무능한 존재다. 만일 원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다면, 이 세상에 가득찬 악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탄생지인 카필라성은 명칭상 '산키아학파의 요람'이란 뜻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사진은 카필라성의 유적지.

"유일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세상에 가득찬 악의 현실속에 신이 악을 제거하길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존재"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영 철 〈도서출판 학문사 대표〉



"달마도 책 펴내며 나 찾는 공부도"

'책과 30년 씨름' 수행 … "더 좋은 책 만들자" 발원

어느덧 60이라는 나이가 나를 에워 싸고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이 나이 속에서 내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게 된다. 20대 후반에 출판사업에 몸을 던져 30년이 넘도록 책과 함께 살아 왔다. 책을 만든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님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어쩌면 책을 만들며 살아온 나라는 한 인간의 삶이 조촐한 책으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 삶은 책을 벗어난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간 나는 2천권이 넘는 책을 만들어 왔고 육심일지 모르지만 또 그만큼을 더 만들고 싶다.

한 친구와의 인연으로 뛰어든 이 일을 해오며 나는 한번도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으니 이것이야 말로 전생의 지중한 인연에 따른 내 삶이 아니겠는가.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책들을 주로 만들며 출판계에 이름을 세웠던 나로서는 내 일과 불교와의 인연이 직접적으로 닿을 기회가 적었다. 그런데 5년전에 한권의 만화책을 내며 불교책 만드는 보람을 맛보게 됐다. 〈만화 반야심경〉이란 책이었는데 일본의 원본을 각색해서 내게 됐던 것이다. 물론 영업상의 타산은 맞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 책을 내면서 막연하게나마 불교와의 새로운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 내게는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다.



그뒤 94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유상종씨의 〈인간 생활과 불교의 진리〉를 펴내고는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 생활 속의 지혜들을 꼼꼼히 일러 준 그 책은 내가 탐독한 첫번째 불서였다. 교육용 책을 만들때야 기획단계에서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 쯤만 알게되지만 불서는 만들면서 또 다만들어 시판을 하면서까지 탐독을 하게 되는것이었다. 더구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독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격려까지 해주니 얼마나 큰 재미이겠는가.

말하자면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든 책에 대한 감동을 불서를 통해 받게 된 것이다. 작년 연말 간행한 원광대 최순택교수의 〈달마도의 세계〉는 그런 감동을 더욱 크게 체험 시켰다. 조만간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일본 시장에 내놓게 될 이 책은 사업적 의미를 떠나 내 신행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 절에 가면 어김없이 보게 되던 달마의 그 부리부리한 눈에서 나는 종교적 외경심을 느꼈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무서워 할 그 그림의 강도 높은 인상이 내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뭔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듯하고 또는 '네깐 놈은 또 뭐냐'고 힐책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달마의 눈동자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의 가난을 느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 했다. 나는 왜 달마도 앞에서 그런 외경심을 갖게되는가를. 때문에 언젠가는 달마라는 인물에 대해 공부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마음 저 밑바닥에 묻어 두고 살았다.

그런 가운데 인연이 닿아 최교수의 책을 만들게 된것이니 이것은 분명 나에게 행운의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고가 오고 교정쇄가 돌고 제본에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는 달마를 만날 수 있었다. 달마의 눈동자 앞에서 작아만지던 나를 볼 수도 있었다. 달마도를 이해하며 나는 마음 속으로 내 자화상을 숱하게 그려 보았던 것이다.

달마는 결코 나를 꾸짖지 않았다. 나를 향해 어떠한 힐책도 하지 않는 달마 앞에서 오히려 나 자신이 나를 왜소하게 만들었고 나 자신이 나를 힐책했음을 책을 만들고 읽는 동안 알 수 있었다. 그간 아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니까 나도 괜찮은 불교신자라고 생각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달마를 통해 나를 본듯하지만 나를 통해 나를 볼 수는 없는 것인가를 말이다. 달마도를 이해한다고 나의 자화상을 이해 했다는 뜻은 아니란 사실 앞에서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고민이 있어 나는 앞으로 더 진솔하고 진지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서 만드는 인연도 더 깊게 맺어 갈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지난 세월 책과의 씨름보다 치열한 수행은 없었다는 자부심이 있는한 만들어 온 것보다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그냥 부려보는 허욕이 아님을 믿는다.

선우도량 제10회 수련결사
「 미래사회와 승가상 」

◆ 선우도량 수련결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좋은 벗들의 모임,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을 지향하는 선우도량의 제10회 수련결사가 '미래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실상사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린 수련결사는 무성한 논의로만 퍼져있는 미래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승가상은 무엇이고, 佛典과 역사속 에서 변천되어 온 승가상은 어떠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법 · 수행 · 연구의 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수희동참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미래사회와 승가상
· 구성 : 기조강연(홍선스님)
발제1 – 불전에 나타난 승가상(혜담스님)
발제2 – 불교사에 나타난 승가상(법성스님)
발제3 – 미래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종림스님)
· 때 : 불기2540(1996)년4월3~5일(음력2월16~18일)
· 접수시간 : 4월3일 오후 2시
· 곳 : 근본도량 지리산 실상사
· 대상 : 비구스님
· 참가비 : 3만원
· 준비물 : 대가사
· 문의처 : 실상사(0671)34-3772, 34-3757
서울사무소(02)742-6916, (팩스)742-6917

선우도량 공동대표
혜담 도법 현봉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大空月珠 編著/크라운판 양장/
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546

제6기 불교 기초교리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절에 수십년을 다녔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많으시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뚜렷한 불교관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려보던 불보살님의 모습이 교리와 경전을 배우면서 참된 진리를 실하신,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기초교리부터 경전까지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의 보살도 실천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와 무종교인 · 불교가 어렵다는 분을 환영합니다.

· 개강일시 : 1996년 3월 19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강의 · 일반(주부) 오후 2시부터(선착순 50명)
∴ 오후반 : 저녁 7시부터(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
· 교육내용 : 불교기초교리 · 예절 · 의식 · 사원구조 · 중요경전 등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2 - 16호 한정 B/D 5층

한국불교 태고종 백련사 포교원 원장 박지상 합장
TEL: (02) 547 - 8268, 8269

제14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일시 : 불기 2540년 3월 28일 ~ 4월 1일(음력 2월 10일 ~ 14일) 4박 5일
◆법문큰스님 : 지관스님, 인환스님, 정관스님, 금담스님, 법회스님, 세민스님, 혜인스님, 혜총스님
◆동참금 : 3만원(위패 한 분 모시는데 5천원)
◆지참물 : 백미, 꽃, 과일 약간씩(주무실 분은 담요 1장씩)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051) 809 - 0926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1〉

明敎嵩禪師尊僧篇 (명교숭선사존승편) ③

故 其於天下也 能必和 能普敬 其語無咎 기어천하야 능필화 능보경 기어무구故 其爲信也至
망고 기위신야지

그러므로 능히 일체의 유정·무정에 반드시 화합하여 두루 공경하느니라 (또한) 스님의 말은 망녕되지않는 고로 그 믿음이 지극하며

其法 無我故 其爲讓也誠 有爲可敬 有儀可則 天人望而儼然
기가측 천인망이엄연

그 법에는 아상이 없는고로 겸양이 진실되며 행주좌와중에 여법하여 위엄이 있어 공경할만하고
천·인이 바라보매 엄정하여

能福於世 能導於俗 其忘形也 委衾戰而不恪
능복어세 능도어속 기망형야 위금수이불인

능히 세상에 복이되고 능히 세속을 인도하느니라.

산궁곡

맡은 일이 하찮거나 낮은 지위라도 비천하게 여기지않으며 (또한) 도로써 처함에는 비록 심산유곡에

草其衣木其食 晏然自得 不可以利 誘 不可以勢 屈
초기의목기식 안연자득 불가이리 유 불가이세 굴

풀로 옷을 삼고 나무열매로 밥을 삼아도 편안하게 스스로 만족해 하는지라
이끗으로 유혹하지 못하며 위세로써 굴복시키지 못하고

謝天子諸侯 而不爲高 其獨立也 以道自勝 雖形影相早
사천자제후 이불위고 기독립야 이도자승 수형영상조

천자 제후의 자리를 사양했다하여 고결하다 하지 않으며 홀로 우뚝서면 도로써 스스로 빼어나니
비록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불쌍이 여길지라도 (비록 매우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일 지라도)

"명예·이름을 산골 메아리 같이 보고 무리지어 살때 법으로써 권속 삼아야"

(또한) 그 몸을 잊음에는 금수에게 내 맡겨도 아끼지 않으며

其遺形也 冒寒暑而不廢 以法而出也 기독송야 모한서이불폐 이법이출야
遊人間徧聚落
유인간변취락

독송을 함에는 춥고 더움을 무릅써서 폐하지 않고
법으로써 세상에 나갈때는 (세상에 법을 전하고자 함에는) 인간세상·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되

視名 若谷響 視利 若遊塵 視物色 若陽艷 聞歌聲病
시명 약곡향 시리 약유진 시물색 약양염 문가성병
양염 후구빈병

세속의 명예·이를 보기를 산골짜기 메아리 같이 보고, 이끗을 보기를 떠도는 티끌보듯하고
사물과 형색보기를 아지랑이 보듯하고 가난한 병자를 돌볼 때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 기르듯이 하고

瓦合與攢 而不爲柬 以道而遊也 雖深 와합여대 이불위비 이도이처야 수심山巖谷
而不爲孤 其群居也 以法爲屬 會四海之人 而不爲混
지인 이불위혼

고독하지 않고 대중과 무리지어 살때에는 법으로써 권속을 삼는지라
온세계 사람이 다 모인다해도 뒤섞이지 않으며

其可學也 雖三藏十二部 百家異道之書 無不知也
기가학야 수삼장십이부 백가이도지서 무부지야

가히 배울때에는 비록 경·율·론 삼장과 12부와 백가의 다른 도의 서적이라도 알지 못하는게 없고

他方수俗之言 無不通也 祖述其法則 有文有章也
타방수속지언 무불통야 조술기법즉 유문유장야

유문유장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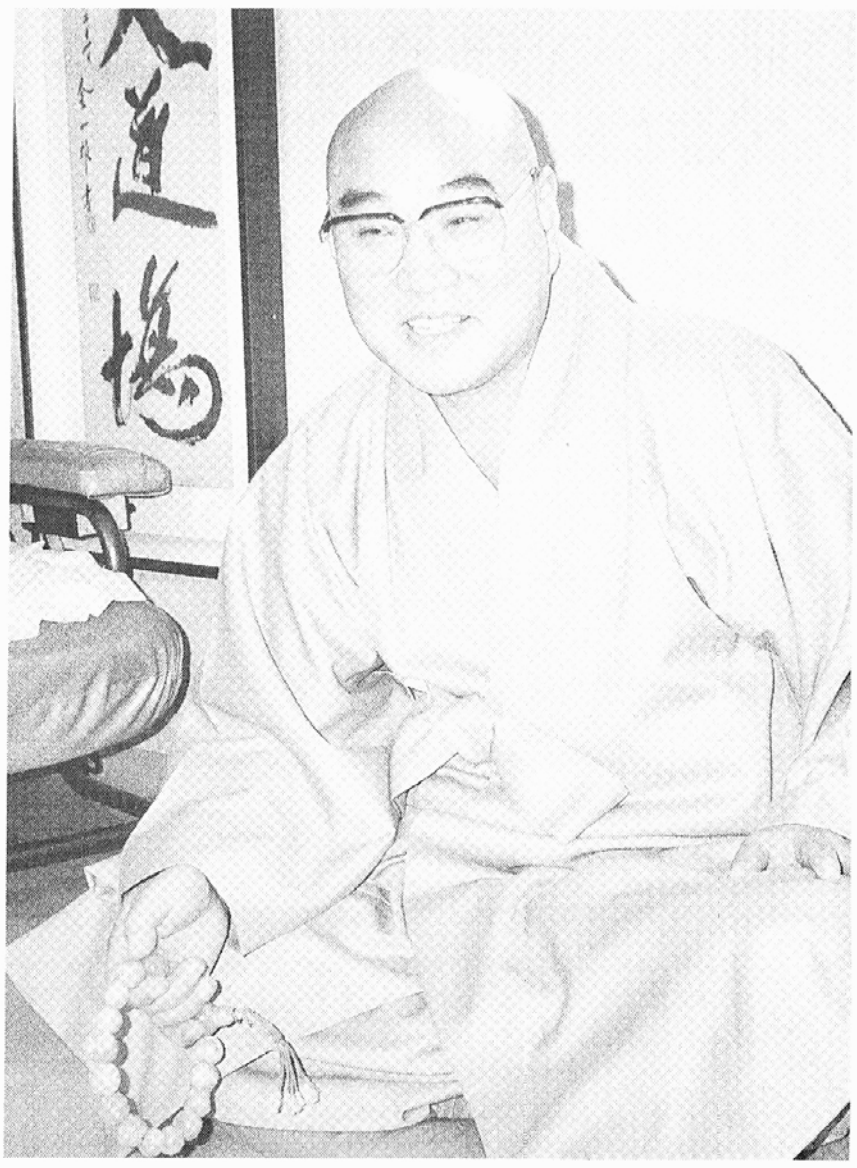
다른 지방 다른 풍속의 말이라도 통하지 않는게 없다.
(고로) 옛날과 지금의 법을 저술함에 실다운 진리의 글과 문장이 있으며

龍眼

★ 지상법석

"자비희사 가르침 실천

월서스님 〈제주 천왕사 주지〉



악력
- 1936년 生
- 55년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계, 59년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 60년 법주사 강원,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
- 조계종 4, 5, 6, 10대 종회의원 8대 종회의장
- 분황사, 조계사, 불국사 주지 역임
- 조계종 초심 호계원장(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불교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터인데 그 이유를 명쾌하 대답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부처님의 법은 광대무변이라 하루아침에 다 배워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곳곳마다 부처님이 아니계신 곳도 없다하여 불법의 무한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까.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해준다'는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즐겨 내놓는 대답이지요. 참으로 훌륭한 대답입니다. 백점짜리 대답임에 틀림이 없지만 불교는 그 좋은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불자들이 이 대답에만 갇혀서 불교신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해준다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수행과 이타행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은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훌륭한 의지의 표현, 즉 불교신행의 다부진 원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참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나라는 이 물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나'에대한 의심을 품는 데에서 불교는 시작되

"우리몸엔
안이비설신의
여섯 도적이
쉼없는 번뇌일으켜
참모습 가리고 있어요"

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대한 궁금증에서 생로병사의 문제로 커져가는 의심덩어리를 깨치기 위해 출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달마이래 중국의 수많은 조사들과 우리나라의 면면히 내려오는 조사들의 선맥과 강맥이 다 나를 바로 보는 지혜의 족보이니 우리들도 진정한 나를 찾아 내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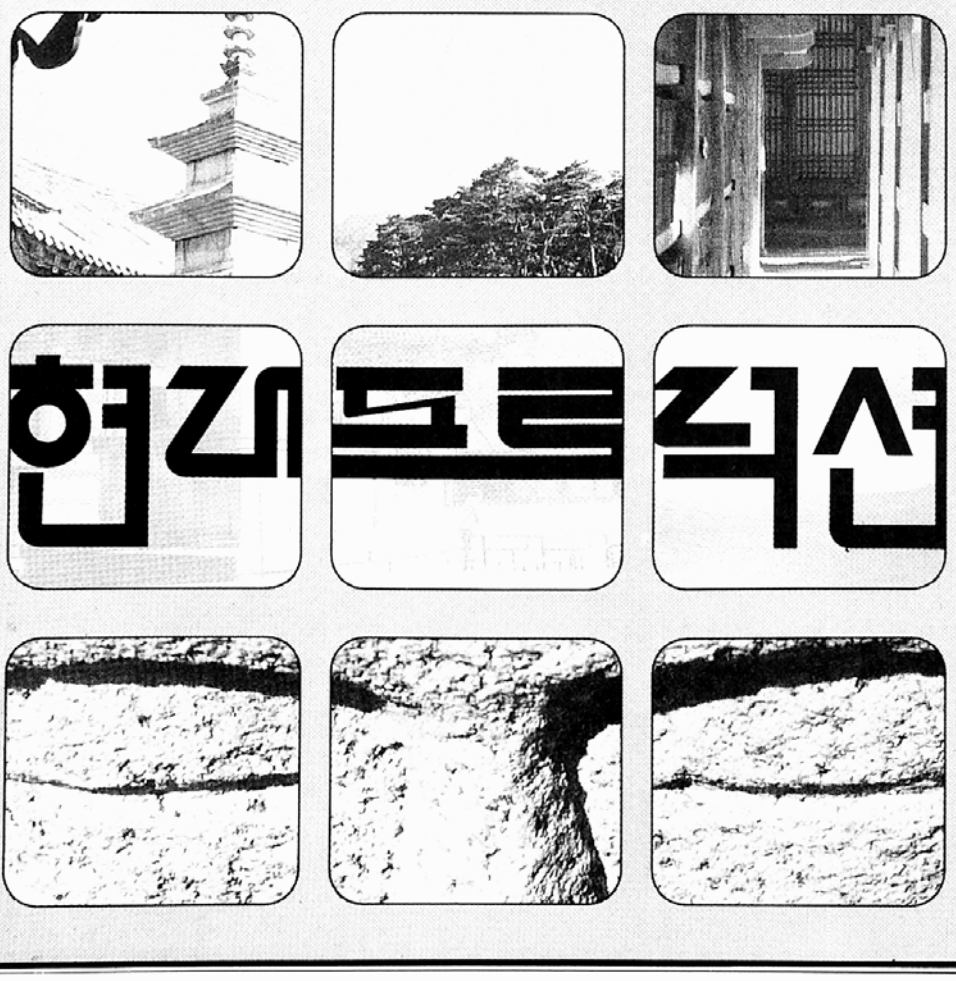
우리 몸에는 여섯의 도적이 있어 내가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는 이 6진이 단 한 찰라의 순간도 쉼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니 어찌 오롯한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ㅇ말입니다.

바로 이 6진이 일으키는 경계를 뿌리째 뽑아 낸 자리에서 원증묘각을 성취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화두들기를 권해 온 것입니다. 화두를 들어도 그냥 들었구나 싶게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어정쩡하게 화두들고 수행하는 일은 마음자리에 구름만 더 쌓아놓는 부질없는 일이될 뿐입니다.

저 넓고 푸른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는 줄이야 다 알지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어둠이고 혼란이듯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희노애락이 모두 다 태양같이 밝은 자성을 가리는 구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물쩡 화두를 들고 닦는답시고 먹구름만 더 쌓는 일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몇년전에 입적하신 성철스님께서 누누히 강조하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일여(寤寐一如)의 경지를 놓지말고 수행하라는 것인데 이 경지에 오르는일도 쉬운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선은 행주일여(行住一如)의 경지에서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변함없이 화두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음에는 깊은 꿈속에서 마저 화두를 놓지 않는 몽중일여의 경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숙매일여라 해서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잃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경지를 통해서 오매일여 즉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꿈속이거나를 구별 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일여의 수행을 하다가 문득 화두를 깨치고 나면 그만 마음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져 환한 자성의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상자에 보물을 넣어 두면 그 보물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잘 보이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 아무리 빛나는 보물이라도 상자가 두텁고 때묻어 있으면 잘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 속의 보석을 안에서나 밖에서나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상자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화두를 들고 오매일여의 경지에서 수행을 하고 또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도의 삶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치우침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치우치는 마음은 바른 삶의 길을 흐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고 넘쳐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락아정의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의 무명실을 너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지상법석

기쁨 확산시키는 보살행”

‘나 바로보기 수행’과 ‘남의 고통 나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한뿌리

무 조여도 아니되고 너무 느슨히 하여도 안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낳는 적정한 조율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삶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네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의 이득은 자기의 건강이란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나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추구하는 이익 가운데서도 모두를 재산의 이익을 최고로 치고 있지요. 물론 재화의 이익을 많이 보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과 생명과 이웃의 소중함을 잊어 버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있는 이익보다 자기의 몸이 건강한 게 더 큰 이익임을 알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나의 건강이 이웃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큰 이익추구는 없겠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기울지 않게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하나 최상의 보물은 만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데서 과욕과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천만원을 가지고 만족 못하는 사람보다 단 일만원을 가지고 만족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인 겁니다.그는 만족할 줄 알아서 그 만족 속에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만족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지요. 물질과 정신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치우침이 없으니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고의 벗은 신뢰라는 덕목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통로이고 다리입니다. 성수대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져버려서 무너진 다리가 된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장 큰 희망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신뢰라는 재산만 있으면 억만의 부호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게 신용이란 재산만 있으면 어느 낯선 땅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동료가 있고 도와 줄 사람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뢰라는 벗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중도의 삶을 잘 지켜갈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도를 살아가는 덕목은 최상의 즐거움은 열반락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즐겁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잘자라서 즐겁고 사업이 잘 되어서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란 것 역시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금방 즐거워하다가 또 금방 슬퍼하는 것이 중생의 삶인데 그것이 다 유한한 즐거움과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즐거움이란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것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열반이란 지극히 즐거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문〉에는 ‘즐거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 불변의 즐거움에 들기위한 수행정진을 게을리 말아야 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사람 영원성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삶을 지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네가지의 덕목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중도적 삶인데 물론 아주 어려운일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나를 깨우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지켜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남의고통을 구제한다는 원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보살의 원력입니다. 이미 자신의 수행을 어느정도 성취시킨 보살이 그 마음을 타인에게로 돌린 것이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해석보다는 위로 진리를 구하며 동시에 더불어 사는 이웃과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나누겠다는 해석이 더 현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듯 어떤 중생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으로 봐도 홀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 내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법을 배우며 사는 불자들은 언제나 이웃과 함께 잘사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불자의 도리로 나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가지의 무량심이란 자(慈) 비(悲) 희(喜) 사(捨)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수행의 방법들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 사무량심의 실천 원력만 있으면 참다운 불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곳에서의 무한한 기쁨을 나누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야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중생심에서는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사촌이 아니라 처음보는 사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겠습니다. 사(捨)는 평등입니다. 우주만물은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이고 파리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모두가 중생계의 중생으로 떠돌고 있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좀 잘산다고 어려운 이웃을 핍박하면 그는 반드시 다시 가난한 시절을 맞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인연의 끝없는 질서입니다. 평등한 존재로서 모든사물을 대할 때 보살심이 솟아날 수 있으니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사란 평등한 개체적 존재로서 상대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 성불의 착한 씨앗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희사의 실천은 나를 버리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를 버린 곳에서만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무량심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나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다고 확신하시란 겁니다.

앞에서 참다운 나를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이유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깨닫는 때와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 한 찰라도 쉼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듯 단 한 찰라도 쉬지 않고 화두를 들고 매진하며 보살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 오는데 누가 문단속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그 도둑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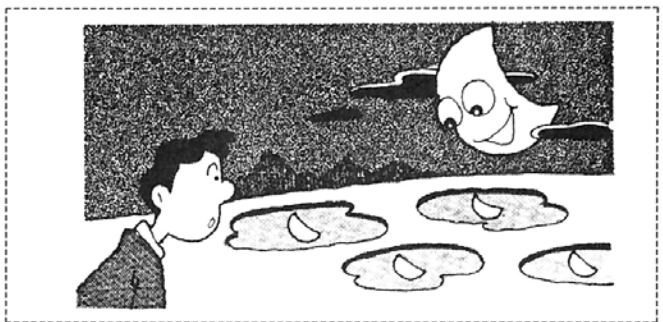
탐진치·희노애락은 밝은마음 가리는 먹구름

건강·믿음·불변의 즐거움 얻는 노력 ‘중도적 삶’

> “지금 이순간 마음속에 도둑 들어오는데 문단속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그 도둑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자(慈)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상대를 즐겁게 해 주는 것 또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즐거움은 조건이 없는 것이며 유한하기보다는 무한한 것일 수록 좋습니다. 무한의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사랑인 겁니다. 비(悲)는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남의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현전시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듯 자와 비의 실천은 우리 사회의 기쁨을 확산시키는 성스로운 행동임을 잊지 맙시다.

희(喜)는 기쁘다는 것인데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2

양 형 진

사사무애

지난 번에 화엄의 사종법계 중에서 사법계와 이법계, 이사무애법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사법계가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우주 만유의 차별 세계를 나타냄이요, 이법계가 현상의 배후에 있는 절대 평등의 본체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사무애법계는 일체 차별의 사법계가 절대 평등의 이법계와 상즉상입하여 원융무애한 세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를 진공과 묘유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계란 묘유로서 공즉시색이요, 이법계란 진공으로서 색즉시공이며, 이사무애법계란 진공즉묘유로서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어서 색과 공, 현상과 본체, 용과 체가 원융무애하여 그 구분이 없는 중도의 세계이다.

사사무애법계관이란 현상과 본체가 원융무애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개개의 현상 하나 하나도 서로 무애한 관계임을 본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비유로 설명하면 북도봉과 남도봉이, 이 파도와 저 파도가, 사과와 달이 서로 원융무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부족하다. 큰 물에는 무수히 많은 파도가 있고, 도봉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도봉이 있으며, 우주에는 무수한 물체가 늘여 있기 때문이다. 사사무애법계란 하나의 파도, 하나의 도봉, 하나의 사과가 무한한 수의 파도, 무한한 수의 도봉, 무한한 수의 물체와 상즉무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의 달이 뜨면 일체의 물에 그 달이 두루 비치며 일체의 물에 비친 개개의 달은 모두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에 포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즉일체(一卽一切)이고 일체즉일(一切卽一)인 중중무진법계연기의 실상을 보는 것이 곧 사사무애법계관이다 (一卽一切多卽一).

이미 지난 번의 “인타라망”에서 사사무애한 중중무진법계연기에 대하여 만유인력과 아뢰야식의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지난 번에는 인타라망으로 오늘은 사사무애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현수 스님이 사사무애한 만유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십현문(十玄門) 중의 하나가 “인타라망경계문”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은 사실 같은 내용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오늘은 사사무애의 예를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찾아 보도록 하자.

양자역학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였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세워 나갔던 보어 등에게 양자역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어 등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문제를 풀면서 양자역학의 제 개념을 공고히 하였으므로, 아인슈타인의 노력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양자역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로 유명한 것이 1935년에 발표된 EPR 역설이다. 그리고 벨이라는 이론물리학자는 1964년에 이 EPR 역설을 검증 가능한 형태의 부등식으로 나타내었다. 이 벨의 부등식은 몇 가지 변수에 대한 자명해 보이는 전제와, 집합에 대한 간단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역학이 이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역학의 예측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 무애관계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

이 맞고 벨의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교한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는 그토록 자명한 방식으로 유도된 벨의 부등식에 틀린 곳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벨의 부등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던 집합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심가는 곳은 자명해 보이는 부등식에서의 변수에 대한 전제 몇 가지 뿐이다. 이에 대한 다소 복잡한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등식의 변수에 대하여 상정하는 실재성의 가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역학과는 달리 양자역학의 어떤 경우에는 부등식의 변수에 대응하는 물리량의 실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경우가 실재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보편적인 경우이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한 물리량에 대한 관측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다른 물리량에 대한 관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사무애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는 결국 미묘하게 성립하는 상호연관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끝없는 연기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전통 불교 의식 교육

한국 불교 전통 의식의 계승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1996년 3월 27일(음력 2월 9일)~4월 1일(음력 2월 14일)까지 5박6일 간
- **장소**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승달산 선혜정사
- **참가 대상** : 종단을 초월한 모든 사부대중
- **강습 내용** : 안차비, 권공 및 작법 등
- **초청 강사 스님** :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일응 스님
- **강습비** : 5만원(숙식제공)
- **교통편** : 광주고속 터미널(목포 무안 방면) → 무안 직행버스 터미널 하차 → 무안 군내버스(몽탄 방면) → 몽탄역 앞 하차 택시(5분 거리) → 선혜정사
- **연락처** : 전남 무안군 선혜정사 (전화 0636/52-3508)
  광주광역시 율곡사 (전화 062/263-4575)

대한불교 태고종 선혜정사 능산당 성원 합장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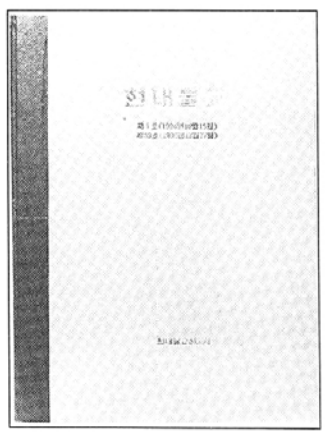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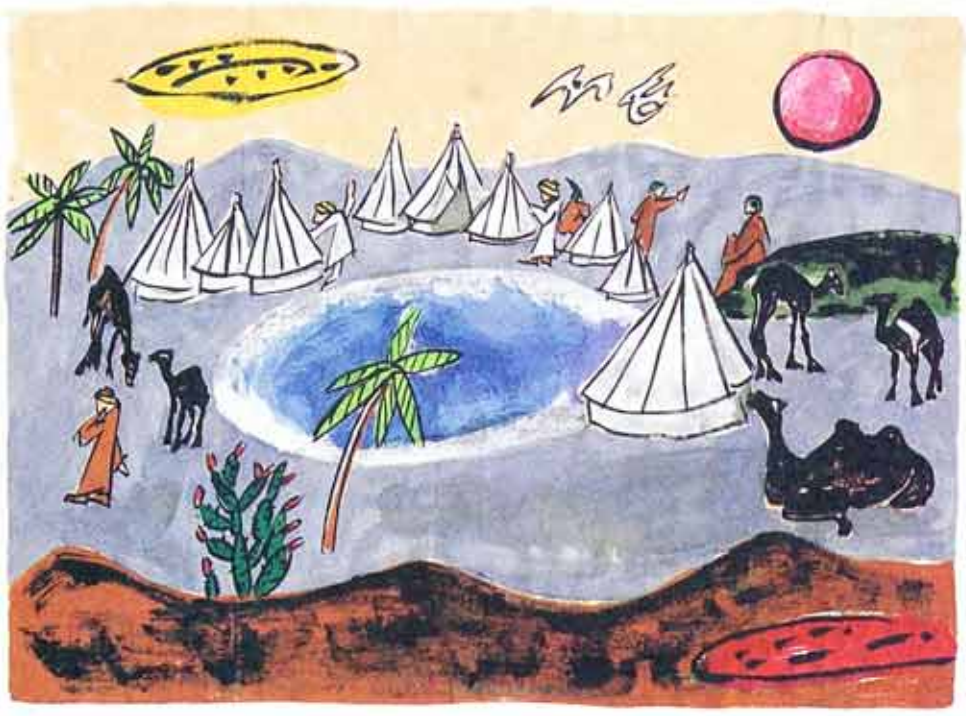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고은 불교대하소설



하룻밤의 별

만화 합두 그리고 불이들을 연행하는 나타무리들은 천산남로 일대의 동서를 오고가는 대상(隊商)들을 습격해서 갖가지 진귀한 물화를 빼앗는 강도집단이었다.

아마도 각 거점에 배속된 무리까지 합친다면 1백명의 우락부락한 사람들과 나타 1백필 이상과 주력(走力)이 좋은 말 수십필이 있는 모양이다. 이곳의 무리는 20명의 나타강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강도가 아니다. 그들이 노리는 대상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한번 털린 자들은 2년이상은 그대로 놓아둔다.

그럴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고적이나 골동품에 관한 뛰어난 감식자(鑑識者)가 있어서 사막의 도처에 파묻혀 있는 옛 시대의 대상들이 죽었던 일대를 발굴해서 주로 페르시아나 터키족 그리고 이태리나 스페인사람 부자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같은 누란 일대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잡축을 통해서 뒷날 불란서나 영국의 문화 탐험가들이 이 일대를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는지 모른다.

이들 나타강도들의 일부는 청나라에서 한족(漢族)의 주권을 따벌이다가 중앙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 변새(邊塞)일대로 도망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청나라나 제정(帝政)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몽골족이나 터키족 그리고 누란 일대의 소수민족들이 어울려 있지만 서로 인종차별 따위를 하지 않는 화목이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여러 지역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통역을 맡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 세 사람을 각각 나타에 태워오면서 불이를 맡은 강도가 바로 고대인도의 범어(梵語)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그는 불이가 불교승려에 가까운 신분임을 알게되자 당장 수미산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여보시오! 나도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힘을 전하는 몇가지 통로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오. 통로란 범어로 나디라고 하던가. 오른쪽에는 태양으로 통하는 핑갈라가 있고 달에 응하는 이다가 있고 그 가운데 통로가 곧 몸을 종합하는 수슘나가 있다 하거니와… 당신, 수미산이란 세계에 대해서도 들어보았겠지요? 수미산에는 그 밑부분 바다 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한그루 거대한 나무가 있다 하지요. 그 나무야말로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 됩니다. 인간에게 척추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축을 통해서 생명의 힘이 오르내리는 것이라 합니다. 우주는 광막하나 그 우주의 어딘가에는 반드시 어느 곳과 어느 곳을 잇는 생명의 힘이 오고가는 통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도 그 어느 곳이 생명의 힘이 오고가는 통로인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

불이는 새삼 놀라고 있었다. 이 강도떼 가운데 이렇듯이 해박한 얘기를 잡담을 하는 것처럼 술술 내뱉다니!

그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죽지 않고 북쪽으로 달려가면 천산산맥이 만년설을 이고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지않고 남쪽으로 달려가면 그곳이 곤륜산맥입니다. 곤륜산은 멀리는 천축(天竺)과 중국을 가로막은 성곽이지만 그 성곽은 하늘 속의 우주를 이루는 설산입니다. 또한 곤륜산은 중국의 모든 물이 그곳에 뿌리를 두고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前漢)시대 이래 수많은 구도승들이 이 천산과 곤륜 사이의 사경(死境)을 헤매이는 동안 그들의 목적 이외의 경지인 생명의 힘을 만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석가모니 이전의 힘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 강도의 말투는 점점 정중해지는 것이었다. 때라서 그의 높은 식견에 대하여 불이도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불참혀가는 신세인 것이다.

바로 그 신세가 된 불이가 슬적 물어 보았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강도는 여태까지의 말투와는 사뭇 달랐다.

"그런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소…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런 것이야 몰라도 되는 일이오. 한 마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거나 지금보다 더 위험한 곳에 밀어넣을 리는 없오."

"고맙습니다."

불이는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일대에서 오래 견디며 살아온 소수민족의 백성처럼 비굴하기까지 한 사의를 나타내었다.

유식한 강도는 그러나 그런 불이에 대해서 마치 그의 수준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듯이 매우 정신적으로 활발해지는 것이었다.

"보시오… 이 모래는 아까와는 다릅니다. 좀 딱딱하지요? 나타들의 발급도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오… 그런데 이 일대는 바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산덩이만한 모래언덕도 대번에 휩쓸어 가버린 뒤 그 밑창에서 오래동안 굳어져 있는 사암질(沙岩質)의 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오… 그런데 바로 그 밑에는 몇천년전에 세워졌던 도시가 매몰된 채 그 도시 전체가 화석이 되어 있단 말이오…."

"…"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래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대 또는 전생(前生)의 도시를 밟고 가는 셈이라오. …도시 뿐이 아니라오. 오아시스도 파묻혀 있오. 그것이야 오아시스의 수원(水源)이라 할 먼 지역의 산악지대 이변으로 수량(水量)이 줄어들거나 그 물이 오아시스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에 그만 그 일대에 머물고 있던 대상이나 시장 그리고 여러 주거지가 함께 모래바람에 파묻혀 버리고 만 것이오."

"우리도 그런 자취를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본 것은 그 규모가 작은 것이오… 당신들을 만난 곳에서 서쪽으로 몇백리 더 건너가면 그곳의 모래언덕에는 지난 시대의 은성하던 도시의 잔해가 살벌한 기둥 따위로 숲을 이루었거나 쓰러져 있는 기둥으로 난장판이 되어있는 광경이 오래동안 전해지고 있다오. 1년내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기둥 따위는 악을 골도 모른다오. 그렇다고 풍화되지도 않는다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부대에 붓잡혀 한대원이 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오."

불이는 강도의 말을 통해서 그 강도가 어쩌면 구도승으로 이 타림분지를 건너가다가 강도로 편입되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강도가 강도집단을 '부대'라고 말하고 그 자신을 '대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관심거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타의 대열은 속도를 느리거나 재촉하는 일 없이 아주 유유한 걸음걸이로도 어느덧 타림하(河)의 물줄기를 만날 수 있었다.

선두에서 '우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 정지의 신호였다. 그러자 나타 대열은 이제까지의 1열종대를 바꿔어 한 무리의 떼줄로 어울렸다. 나타들도 그런 일에는 익숙하였다.

그런 나타의 눈들이야말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투명하지 못한 흐린 눈의 경륜을 내보이고 있었다.

강도집단의 두령인 주황색 천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로 두른 대장이 이 강가에 천막을 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내일 굴로 가기 전에 실컷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볼 일이다. 그러나 술은 한방울도 입에 대지 말 일이다. 그런 놈이 있다면 내 칼을 받아 죽으나 술 취해 있다가 모래바람이라도 만나서 파묻혀 죽으나 똑같을 터이다."

짐은 강도가 저쪽에서 그의 나타에 강도질로 빼앗아온 물화가 가장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장의 명령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대장어른의 말씀 한 마디가 저희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대장어른의 말씀 한 마디가 저희들을 가난뱅이로 만들기도 하시고 억만금의 부자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놈아 그만 둬라. 도적질하는 놈들은 거지와 달리 말을 아껴야 한다."

"예잇!"

이렇게 몇마디가 있고 나서 대원들은 나타 한 마리의 짐으로 가지고 온 막대와 천막을 펴서 그것으로 모래바닥에 박고 묶어치고 함으로써 당장 숙소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이

어서 태양이 서쪽 사막의 지평선으로 넘어간 직후의 그 장엄한 낙조의 나머지가 어둠에 편입될 때 그들은 대장의 뒤를 따라 모래바람에 오체투지의 큰 절을 세번씩 하는 것이었다.

물론 만화 합두 불이도 그들의 의식(儀式)을 따랐다. 불이는 그들 강도집단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불교의 한 교파와 관련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여느 강도집단이야 저녁무렵이라고 해서 해가 진 곳에 절 따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불이를 태운 강도 만이 아니라 다른 강도들도 한 가지씩의 기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천막을 아주 능숙하게 치는 털보 강도조차 혼자말을 하는 것을 불이가 재빨리 알아들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의 공부로는 나한(羅漢)이 되기는 영 글렀어. 그러므로 어서 굴로 돌아가야지. 거기 가서 나한 그림이나 실컷 우러러 보아야지."

바로 이런 말을 불이는 들을 수 있었다.

"수미산에는 바다바닥에서 하늘끝까지 닿은 한그루 거대한 나무가 있다지요… 세계의 중심을 이르는 축입니다" 강도의 말에 불이는 새삼 놀라며 어쩌면 그 강도가 구도승이었는데…



► 69 ◄

낙조가 어둠에 편입될 때 강도집단은 오체투지의 큰 절을 세번씩 했다

만화와 합두 그리고 불이들은 불이를 맡은 강도의 감시로 되어 두번째 천막 안에서 밤을 자내게 되었다. 과연 여자라고는 씨도 없는 이 강도집단에서 유일한 여자인 합두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불이를 맡은 강도가 합두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불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것을 흔들어 소리를 내시오. 그러면 내가 깨어날 터이니"라고 말하며 작은 쇠방울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나 소에 다는 워낭과도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합두가 소변을 볼 때는 강도가 돌아서서 하늘의 별들을 실컷 바라보는 일로써 합두를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이었다.

불이가 나직하게 물었다. "굴은 어디입니까?"

"내일은 알 터이요. 어서 자구려."

그림 · 조향숙

藥師經法要集發刊

경에 약사유리광여래의 이름만 들은 인연으로 생사 고뇌를 해탈하면 나고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여러생명을 살생 살해하며 싸우고 고뇌하고 가정과괴하는 유정이 전환되고 정신과 육체와 마음에 고통의 병을 얻거나 고도의 억압을 당하거나 횡액,재사,단명등을 약사여래의 명호만들어도 일체가 전환되며 늙어서 죽음에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하며 약사여래 이름만 들은 공덕으로 물수, 관음, 대세지무진의, 보단화, 미륵, 약왕, 약상보살등 8보살이 나타나 신통으로 옹호하며 약사도량에서 약사경 의식이없어 일반경으로 약사법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양로원, 유아원, 간병인들은 물론 아기를 낳고 혼례를 치루는 분, 환갑을 하지않고 넘어가는 분 70, 80 ,90 및 부부중 혼자 차리시는 분, 조상 산소, 밀레, 사초, 사찰 신축, 증축 하시는 분들이 법보시품으로 불사를하시면 더욱가치를 받으며 정법이 약하고 탈법은 강한 요즘 약사경을 수지독송 하시여 보시하시어 불국정토에 이바지 하시고 무량공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사유리광여래불

보급처 약사선원
TEL821-6622
923-3110

불교용품 도매상 조계사 앞 연화사
(443쪽,5500원)

六井六庚申道通 기도 안내

祕傳으로 이어 오던 **육경신 도통 기도**가 금년 丙子年 음력 2월 초 5일 入門하여 초 6일 奠時에 회향합니다. 大道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며,

六庚申이란 1. 天眼智通 2. 他心智通 3. 天耳智通 4. 宿命智通 5. 神足智意通 6. 漏盡智通 등이 60일에 한번씩 들어오고 1년에 6번이 들며, 여섯 번을 하여야 一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경만 잘 해도 10년 공부를 앉아서 한 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大人이 되려면 마장 때문에 그만 실패하는데 첫째, 수 마장이고, 둘째, 인 마장이며, 셋째, 병 마장에 걸려 못하는 것을 이 六井六庚申 기도를 통하여 마장을 이길 수 있어 자성을 보아 六通에 들어 가는 기도입니다.

泰田居日居士는 저 태양의 오온 육기로써 六庚申 道通에 入門하여 全國各地에서수마와 마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으며, 뜻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어 이 기도에 입문하신 공덕으로 본인에게 옹호해 주는 신들은 근기에 따라 영력과 성취를 관장하며 특히 이 기도는 예술가 · 음악가 · 서예가 · 도예가 · 철학가 · 풍수지리 및 기술에 대한 전문인들에게 몸과 정신과 마음을 밝게 하고, 大道에 들어 가며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기량 위에서 六井 六庚申 道通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양력 3월 23일 入門, 3월 24일 회향 (1박 2일)

회비: 5만원

연락처: 약사선원 821 - 6622, 923-3110

선원장 태일 거일 거사

대중불교 3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대구 삼영불교사점 / 이승환 회장 · 14
쇠북소리 · 선거와 거짓말 / 임헌영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최고급 승복 주문받음"이라 / 김정자 · 12
대중불교시사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옥/조순환 · 48

진단 / 직장직능불교 현황 · 76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서야 하나 · 82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산화일련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우리 절의 신행,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현장 · 72
해외불교석학열전(3)
알랜 와츠(Alan Watts)/ 정희수 · 94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②분의 향연 / 원성 · 53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얼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해외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선정 · 86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3일,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남한강변의 폐사지와 절들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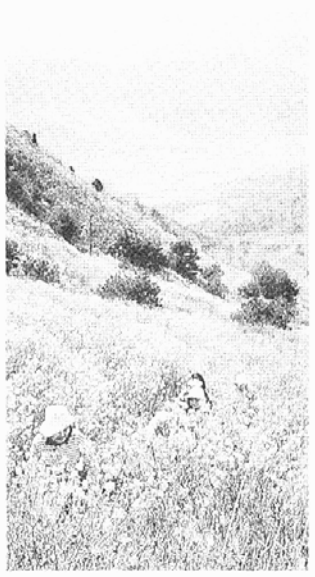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일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신륵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기 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 앞의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참가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접 수 - 전화(02)752-7047, 764-1614

은행지로번호 국민은행 008-01-0236-597 김관동(산천기행)



◇ 봄꽃이 만개한 주말, 가족과 함께 고찰을 참배하고 감로수와 같은 설법을 듣는 것은 산행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 물감을 쏟아부은 듯 장관을 이룬 무학산 진달래꽃밭은 봄철 가족 산행지로 첫손 꼽힌다.



불심·건강·화목 '일석삼조'

"가족 봄 나들이 산사로"

일반인들도 천년 고찰서 봄정취 만끽

호구산 용문사·무학산 백운사등 명소

봄이다. 생성과 소생의 절기에 나들이도 크게 느는 때이다.

"이번 휴일에는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여수 향일암으로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날 예정입니다. 향일암은 시원한 다도해와 함께 위치해 있어 봄의 기운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처로도 널리 알려져 봄 산행으로 가장 좋습니다."

매달 산행을 하며 육체적 건강과 신심을 돈독히 한다는 박광민씨의 가족은 이번 주말 향일암으로 가족산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처럼 그리 높지 않고 고향 뒷산같이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사찰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문 등산객들에게도 인기를 끈다.

우리나라에는 명산이 많은 만큼 부처님의 법열이 오롯이 살아숨쉬는 천년고찰도 즐비하다. 더욱이 산은 각 계절마다 절경을 그려내고 고찰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사찰이 있기에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처럼 산사는 등산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갖가지 봄꽃이 만개하는 요즈음 천년고찰은 봄철 가족산행지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청명한 봄날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아이들에게 사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가족산행의 향방편일 것이다. 이어 향긋한 솔냄새를 맡으면서 울긋불긋한 진달래, 기나리 등의 꽃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면 봄나들이의 극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봄을 맞아 산행을 통해 신심을 증장할 수 있는 곳으로 남해 호구산 용문사와 마산 무학산 백운사 등도 봄철 대표적인 산행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소재한 이 사찰들은 어느곳보다 가장 먼저 싱그러운 봄내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단위 등산가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 산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재의 진수와 불법의 오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산사 그 자체가 전법과 포교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금강산우회 김대원씨는 "백운사가 있는 무학산은 사시사철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한쪽의 산수화처럼 펼쳐지는 진달래꽃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경"이라며 "사찰을 찾아 신심도 다지고 등산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슴없이 봄철 산행지로 백운사를 권했다.

이밖에도 고창 선운사, 해남 대흥사, 강진 백련사, 순천 선암사 등은 동백꽃으로 김제 금산사, 하동 쌍계사는 벚꽃으로 유명하다. 하늬바람을 타고 3월중순부터 피기시작하는 봄꽃은 4월초쯤 만개할 예정이어서 전국의 명산명찰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게 등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가족과 함께 산사로 봄나들이를 하며 자연속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맘껏 느껴보는 것도 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신행의 향방법일 것이다.

김중근 기자

간장 '비상' …사찰서 만든 장류 '인기'

정성 깃든 무해식품 주부들 신뢰

신도회 중심 주문 생산 …비싼게 흠

그룹우유 파동에 뒤이은 자장면 공업용 돼지기름 소동과 발암간장 논쟁….

끄리를 물고 이어지는 식품안전성 논란이 주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재래식방법으로 제조, 보급하고 있는 사찰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들이 주부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류는 품질좋은 콩만을 엄선, 가을에 메주를 만들어 발효시킨 후 말린다. 이듬해 옹기에 약 20%의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2개월 후 메주를 건져내어 된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액상을 달여 간장을 만든 것으로 발암물질인 DCP와 불임을 유발하는 물질인 MCPD의 함유 유무논쟁에 불안해 하며, 무해한 식품을 찾아 헤매는 주부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의 이창윤 사무국장은 "남의 건강이야 어찌되든 내 잇속만 차리면 그만이라는 비양심적 이기주의 상혼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오늘날, 사찰에서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부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찰에서 판매되는 장류는 무해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외에도 소금대신 죽염을 이용, 산성화 돼 가는 현대인들의 체질을 개선, 면역기능 및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등의 건강증진에도 한 몫을 하고 있어 식단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박뉴스다.

사찰의 장류는 사찰 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문제작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찰장류보급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금강경독송회는 회원들이 직접 콩을 재배, 제조 보급하고 있는 경우로 '복메주'라는 상표까지 등록해 놓고 있다. 또 돈연스님이 보급하고 있는 정선메주의 경우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 판매하는 장류는 일일이 수공으로 제조되는 관계로 쇄도하는 주문량을 충족시킬 만큼의 생산을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일반 간장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좋은 장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유통 방법모색이 시급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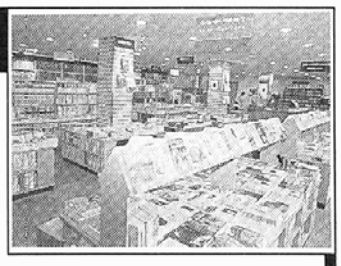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장류 제조 판매 사찰

△금강경독송회 02-931-9900 △정선메주 0398-62-2710 △봉은사 02-545-1448 △구룡사 02-575-7766 △경국사 02-914-5447 △석왕사생활협동조합 032-668-0072 △축서암 0523-82-0011 △봉령사 0346-571-0556 △대구불교회관 053-627-3747 △대전불교회관 042-627-0026 △대구 법왕사 053-766-3747 △삼보사02-352-6406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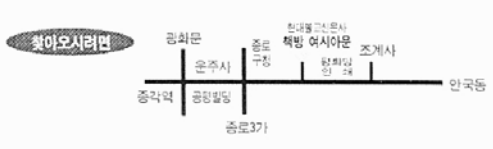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 달라이 라마


◇ 틱낫한 스님


◇ 성운 스님


◇ 아친 틸라라 스님


◇ 다이센 데시마루 스님


◇ 아잔 수메도 스님

해외고승 법문집 국내소개 잇따라

틱낫한·성운스님등 생활법문 '인기'

수행 첫단계부터 상세히 설명
티벳·남방불교 재인식 계기

다른 나라 고승들의 법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구촌시대를 맞은 요즘 이같은 궁금증을 직접 확인시켜 줄 해외고승들의 법문집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어 다양한 나라의 살아있는 불교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고승 틱낫한스님의 〈삶에서 깨어나기·금강경〉(장경각 刊)과 미얀마 고승 마하시 사야도우스님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경서원 刊), 일본 다이센 데시마루스님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장승 刊)이 출간된데 이어 올해도 대만 불광산 성운스님의 〈마음의 비밀 2〉(토방 刊)와 미얀마 아친 티틸라스님의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는가〉(장승 刊) 등이 잇달아 번역·소개되고 있다. 특히 '현대 해외고승법문집' 시리즈를 기획 출간중인 장승은 달라이 라마·데시마루 스님의 법문집에 이어 중국 스리랑카 고승의 법문집을 번역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최근 몇년 사이에 더욱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현대 해외고승 법문집은 "남방불교 또는 티벳불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게 출판기획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책은 모두 17여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책이 번역된 스님은 단연 티벳승왕 달라이 라마의 저서와 법문집이다. 장승의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와 새터의 〈하바드의 달라이 라마〉, 예지각의 〈멀고 먼 자유의 길〉〈그대 수행의 발이 약하면 자유라는 마을에 갈 수 없으리〉 등이 나왔다.

틱낫한스님과 성운스님의 법문집도 많이 번역됐다. 틱낫한스님의 〈평화로움〉〈소설붓다 상·하〉〈삶에서 깨어나기·금강경〉 등이 장경각에서 나왔고, 성운스님의 〈보통 중생 보통 부처〉(보림사 刊)〈마음의 비밀 1, 2〉(토방 刊)가 소개돼 불자들에게 많이 읽혀졌다.

나라별로는 남방불교에 속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고승들의 법문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스리랑카 라훌라스님의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와 마하테라스님의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경서원에서 출간됐다.

이밖에도 자난 1959년 120세의 나이에 입적한 중국의 고승 허운스님의 전기집 〈10난(難)48기(奇)〉(보림사 刊)와 영국 아잔 수메도스님의 〈물소를 닮는 마음〉(고요한 소리 刊) 등이 출간됐다.

라훌라스님의 법문을 번역한 이승훈씨는 해외고승 법문의 국내소개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불자들은 부처님을 잊고서 조사(祖師)들에 매어 있었다. 조사의 말이라 하여 금구(金口)가 아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수행전통이 살아있는 남방불교의 우수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묘주스님 '성유식론' 최초 번역


◇ 묘주스님

동국대 강사인 묘주스님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을 최초로 번역했다.

〈성유식론〉 10권은 인도 유식학을 정립한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호법(護法)등 10대 논사들 각각의 주석서를 현장이 659년에 번역할 때 호법의 학설을 중심으로 함유(合糅)한 논서다. 동국역경원이 한글대장경 제193권 〈성유식론 外〉로 간행했다.

묘주스님은 원측의 〈해심밀경소〉 하권과 무착의 〈섭대승론〉, 세친·무성의 〈섭대승론석〉 10권도 번역하고 있다.

와 제 외 책

불교논리학 1·2

임옥균 옮김



6~7세기에 활약한 디그나가(陳那)와 다르마키르티(法稱)을 중심으로 인도 디그나가 학파의 대승불교 논리학을 다룬 본격적인 불교논리학서가 나왔다.

지금까지 출간된 불교논리학 관련 서적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불교논리학자들이 쓴 인도·티벳 원전에 대한 완벽한 연구에 토대를 둔 역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4년여의 번역작업끝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저자는 20세기 초반 불교인식론 연구의 서전을 장식한 러시아의 불교학자 데오도르 체르바츠키이며 역자는 서울전문대 임옥균교수.

불교와 관련한 책과 논문들이 대부분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전체적인 불교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불교논리체계를 간과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책은 역사학·철학자는 물론 산스크리트 언어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서원 각권 1만5천원〉

인도·티벳 원전토대 '불교 논리학' 정리



새로나온 책…

▲사람노릇 하고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혜자스님 지음)=참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본래 마음'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며, 끊임없는 보살행으로 이루어진다. 청담 효행상 제정과 경로잔치, 자연보호 등 경로효친사상과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진작시켜 온 수락산 도안사 주지 혜자스님의 법문집. 〈일출 6천원〉

▲환경혁명(조길영 옮김)=오늘날 지구환경문제의 실체를 '자연의 위기'가 아닌 '사회의 위기'로 규정, 기존 환경론들의 한계를 비판했다. 저자 존 포스터(오리건 주립대 교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세계의 생산양식 및 체제가 변혁돼야만 하고 의식있고 결집력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쪽나라 6천5백원〉

▲백사전(성각스님 옮김)=우리나라의 〈춘향전〉만큼이나 널리 읽히며 민중의 사랑을 받아 온 중국 전래 불교소설. 작자미상의 이 책은 〈서유기〉에 버금가는 기서(奇書)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처음 소개됐다. 〈답게 6천원〉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오강남 지음)=〈길벗들의 대화〉 개정판. '닫힌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정한 절대적 권위에 모두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닫힌 종교는 종교의 표층구조에 매달리고 열린 종교는 심층구조에 관심을 가진다. 저자는 캐나다 리자이나대 종교학과 교수. 〈열린책들 6천5백원〉

▲조선을 생각한다(심우성 옮김)=한국과 그 예술에 천착하면서 한국인을 옹호하고 그 예술을 찬미하는 많은 글을 남긴 일본의 저명한 종교철학자·예술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의 한국미론. '석불사(석굴암)의 조각에 대하여' 등 41편의 한국예술 평론을 실었다.〈학고재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4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5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6	금강경 강의	법 륜	정 토
7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지켰겠나	이 청	동 지
8	등신불	용 산	문학수첩
9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10	능엄경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구입문의:(02)737-0695

역경원 후원 '보은회' 발족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의 후원단체인 보은회(회장 안창정행)가 지난 1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발족됐다.

보은회는 지난해 말 발족한 녹야원에 이은 두번째 후원단체로서 각 사찰소속 불자 20여명이 모여 창립됐다. 매달 회원 1인당 1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후원회원도 계속 모집한다.

(0346)68-1950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유네스코는 최근 세계인의 독서열을 높이기 위해 4월23일을 '세계 책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로 정했다. 영상매체에 밀려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책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책의 날에는 세계 각 도시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벌어지게 된다.

이광수 '금강산유기' 재발간

30대에 들어선 춘원 이광수의 민족 계몽의 열정과 그 후 일제말기의 방황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앞선책 刊)는 1921년과 22년 여름, 두차례 금강산에 올랐던 춘원의 여행기를 묶은 책이다.

'임석재 민속동요' 출간

구전민요와 설화발굴에 평생을 바쳐 온 원로민속학자 임석재옹(93)이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관습과 풍습을 되살려 주기 위해 50여년동안 써온 민속동요 300여편을 모아 창작집 〈임석재 민속동요〉(전 4권·고려원미디어 刊)를 냈다.

민속 동요집은 점차 사라져 가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동심에 담아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어른들에겐 아련한 향수를, 어린이들에겐 우리의 옛 풍습을 노래로 보여준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신라·서역 교류사'

〈신라·서역 교류사〉(단국대출판부 刊)은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인 레바논 출신 무함마드 깐수 교수의 역작 중의 하나로서, 신라와 서역과의 관계사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인 정립을 시도한 근래 보기드문 노작(勞作)이다.

이 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신라불교의 남래설(南來說)을 주장, 북래설(北來說)의 시원론이나 유일론을 편견으로 보고 부인한 점이다.

남래설 주장의 전거는 '금강산유점사사적기', '유점사월지금상문', 낙산의 관음신앙, 가야국의 건국설화에서 보이는 수로왕비 허황옥의 출신과 행적을 들어 신라불교는 남해로를 통하여 한반도의 동남해 연안지방에 직수입되었다는 것이다. 즉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에 전래된 기존 공전(公傳)의 북래설보다 200~300년 앞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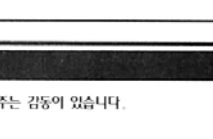
깐수교수는 앞의 전거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사인하면서 불교전래에 있어 종래의 경우 공전에 앞선 초전유포(初傳流布)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과 북래(北來)의 유일설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자는 기원 전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 해상교통의 상황을 조명해 볼 때 불교가 남해로를 통해 한반도의 동남해 연안지방에 직수입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기존 북래설에 따른 신라불교의 유적 유물의 분포사항을 보면, 신라와 고구려의 교통로로 간주되는 죽령로와 조령로를 거쳐 경주에 이르는 주변지역(충주, 봉화, 영주, 아동, 문경, 선산 등)에 산재된 불교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산견(散見)된다. 고구려 불상 양식과 상통하는 불상도 발견됨을 고려하면, 신라 불교의 북래설을 뒷받침하는 가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물 유적의 대다수는 삼국통일기의 작품이 대다수이며, 이들 작품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종래의 북래설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컨데 저자의 남래설은 일단 경청해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겠다.

고대 삼국불교의 전래는 육로나 해로를 통해 각기 다른 시기에 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설(兩說)의 해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불교관계 유적 유물과 문헌을 광범하게 찾아내어 새로운 실마리부터 찾아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밖에 혜초의 서역 행적에서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그가 페르시아와 대식국까지 여행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또한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에 대해 등장한 배경, 출신, 성장배경 등을 밝히고 서역원정의 동인(動因)과 탈라스전의 문화적 업적을 새롭게 정리한 점도 부각된다.

종래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사연구가 단편적 연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이 책은 양 지역의 교류사에 관한 논저, 지도, 원전 등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장래 이 분야 연구의 지침서가 될 역작이라 생각된다.



최 근 영
〈국사편찬위 사료조사실장〉

"양국 불교 유물·문헌등 비교 신라불교 남래설 근거 제시"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빚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항쟁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예고

혜범스님 장편소설

소설 업보



까닭모를 허전함에 가슴시린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삶은 왜 자꾸 치열해지고
세상은 왜 나를 두고 앞으로만 달아나는지……
벌거숭이로 태어나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도 꿈도 역사도 결국 업으로 받는 과보인 것을
지친 우리의 영혼은 어디쯤 이르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설 업보는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녀가 된 기구한 한 여인과 과계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들의 질박한 인간삶이를 통해 루린 대로 거둔다는 業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숨가쁘게 넘어가는 책갈피마다에서 묻어 나오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의 길인 동시에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한다.

반야심경의 작가 혜범스님이 눈물로, 피로 써내려간 살아 있는 혼의 소설 업보.
업보는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바로 業을 그리고 있다.

소설 업보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툭 던지고 간 소설!
그렇다. 은둔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혜범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분들네 꺼이고 짓밟힌 이 땅의 등불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변화한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전2권 각권 값 6,000원 신국판

빼어난 우리 현대사를 業으로 조명한 혜범스님의 질박한 인간삶이의 화두

◆지성만으로 채울 수 없는 젊은 영혼들을 위한 소설

밀알 TEL529O14O~5·FAX5792312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이 향 봉 스 님 장 편 구 도 소 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말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값7,000원 345면 신국판 양장본

밀알 TEL529O14O~5·FAX5792312

지방사찰 문화예술 '열린공간'

다채로운 행사 기획… 포교 다양화 추구

KBS 열린음악회가 오는 5월 천년 역사의 고찰 '불국사'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싱그럽고 반갑다. '열린음악회'처럼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유치가 반갑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열릴 이 음악회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찰이 보고만 가는 단순한 문화유적이 아니라 대중들이 한자리에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펴낸 〈문화예술〉 3월호는 지령 2백호를 맞아 국내 문화예술활동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94년 벌어진 1만여건의 주요문화예술활동중 절반 이상인 55%가 서울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가 26% 등 총 81%가 대도시를 집중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에서의 문화활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빈약한 문화활동이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불자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는데 지역사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철쭉제, 나옙제 등 산행행사나 군민의 날 등 지역 연례행사와 연계해 사찰에서도 문화행사를 기획해 사찰을 열린 공간으로 대중에 적극 개방해 포교에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뿐 아니라 시·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지방의 사찰이 중심이 돼 펼쳐질 올 문화행사를 알아본다.

불국사 봉축기념 '열린음악회' 유치
분황사 음력 5월16일 원효문예대전
칠보사 노인전통혼례·백일장등 마련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KBS '열린음악회'가 오는 5월 19일이나 26일 방영 예정으로 현재 세부계획 추진중. 4월 3~12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는 안장헌씨가 찍은 석굴암등 경주문화재 사진전이 열린다.

▨경주 분황사(주지 종수)=음력 5월16일 원효스님 기일에 맞춰 원효문예대제전 개최. 관소리·마당극·춤 등 공연. 원효스님 저서, 자료, 분황사 유물 전시도 있을 예정.

▨경주 부처님마을(주지 도문)·정토법당(주지 경수)=매년 '월명재'(음력 10월 보름 저녁)와 '충담재'(음력 3월 삼짇날 오전)를 연다. 월명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월명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름달 아래 월명리에서 피리를 불며 향가를 읊는 행사이며, 충담재는 삼화령 미륵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반야성으로 내려와 차를 나누어 마시는 그윽한 행사.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차문화연구보존회 주관으로 매년 10월 다례 시연과 차 겨루기, 문화공연을 갖는다.

▨양산 통도사(주지 자은)=개창주인 자장율사를 기리는 개산대재를 매년 10월 갖는다. 사생대회 찬불가경연대회 등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일지암(주지 여연)=구민의 날인 10월25일을 전후해 다성 초의스님을 기리는 초의문화제가 열린다. 전국의 차인들과 불자들이 초의스님을 기려 일지암을 순례하며 차회도 갖는다.

▨동두천 자재암(주지 선광)=소요산 단풍이 만발한 10월 중순경 동두천시와 연계해 산재를 지내며 시민 노래자랑, 단풍아가씨 선출,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음력 7월15일 백중을 맞아 노동자·청년들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갖는다. 동자에는 팥죽을 보시하고 마당극도 공연한다.

▨대구 칠보사(주지 무상)=5월 8~11일 노인전통혼례식, 사물놀이, 관현악단 공연, 합창대회, 백일장 등 칠보문화축제를 갖는다.

이경숙 기자



◇ 동서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한 돈황석굴 미술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사진은 돈황석굴 제328호 굴에 있는 7존상.

불심시심 〈46〉

비에 취한 풀

峽路經春阻(협로경춘저) 좁은 길은 봄 지나 막히고
溪堂盡日空(계당진일공) 시냇가 초당 종일 비어있네
草酣堤上雨(초감제상우) 둑에 내리는 비에 풀은 취했고
花笑檻前風(화소함전풍) 꽃은 난간 바람에 웃기네
睡熟身仍穩(수숙신잉온) 졸음 깊자 몸은 이내 평안하고
詩成句亦工(시성구역공) 시가 되려면 글귀 또한 교묘하지
一樽無事酒(일준무사주) 일 없는 한잔의 술
斟酌與誰同(짐작여수동) 누구와 함께 주고 받는담

이 시는 백곡 처능(白谷 處能)대사의 시이다. 백곡대사는 17세기의 큰스님이다. 대사가 남겨놓은 문집인 백곡집(白谷集)에 보이는 시문은 당시의 문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수준임을 쉽게 알게 한다. 당시 시를 주고받은 대상들은 당시의 명공 재상들이 대부분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대사의 시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다.

위의 시도 호정 정두원(壺亭 鄭斗源)의 초당에서 지은 시이다. 정두원은 당시 재상이었다. 한 나라의 영의정인 재상의 초당을 읊으면서 세속의 영화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그저 봄날의 경치와 거기에 은거할 수 있는 자연인의 한 모습만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대사가 당시의 명경대부와 격의없는 사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기를 이해하게 한다.

봄이 다 지나도록 막혀 있는 길이다. 오고 감이 없어서 막힐 수도 있고 산길이기에 봄 되어 숲이 우거져 막힐 수도 있다. 그러기에 초당은 종일 비어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두사람 사이 그리움이라 할 수도 있다.

비가 내리자 둑에 깔린 풀은 숲에 취한 듯 비스듬이 누웠다. 봄비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꽃은 봄바람에 웃는다. 꽃 피움이 웃음으로 비유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흩날림의 웃음으로 이해된다. 어쩌면 꽃에게는 봄바람은 헤살하는 번거로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꽃은 되레 웃는다. 모든 것이 고요한 요동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평안하고 평안함에서 오는 졸음이 따라온다. 이때 한 수의 시가 이루어지면 그 시는 글귀마다 아름답다. 한 잔의 술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일의 해결에 필요한 술이 아닌 일 없음의 술이다. 제일 바쁜 재상의 초당에 제일 한가로운 한 순간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지형스님 대길상도 첫 작품전

21~23일 부산일보전시관 … 문화강좌도

포교·복지·장학불사 후원을 위한 지형스님(소림불교아카데미 원장)의 대길상도 작품전과 불교문화대강좌가 오는 21일~23일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기간중 매일 오전 불교문화대강좌(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는 무진장스님, 암도스님, 서윤길교수(동국대) 류시화씨(시인)가 강연을 하며 김병조, 김흥국, 두레패 등의 공연도 마련된다.

20여년간 틈틈이 다진 필력을 바탕으로 물고기, 석불, 용 등 담백하고 소탈하게 선기를 표현한 길상도들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지형스님은 '불멸의 영축산' '성불의 세계' 등 2백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중광스님 회갑기념 회고전



파격적인 붓터치와 실험정신으로 늘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중광스님의 회갑기념 회고전이 오는 4월25일~5월 19일 갤러리 시몬(549-3031)과 조선일보미술관(724-6328)에서 각각 개최된다. '1234展'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70여점 도자기 30여점 등 총 1백여점이 전시된다.

"돈황석굴 미술품 사진으로 본다"

사진집·석굴분석서 본격 소개 처음
저자 위트필드교수 4월20일 한국강연

동서문화교류의 교두보였으며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돈황의 역사와 미술품들이 총망라된 책이 나왔다.

세계적 미술보고로 알려진 돈황석굴미술품에 대한 본격 저서가 국내에서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재 전문출판사 '예경'(대표 한병화)은 런던대 중국·동아시아 미술사 교수인 로드릭 위트필드 교수가 글을 쓰고 일본 사진작가 오츠카 세이코가 사진을 맡아 고려대 권영필교수가 번역한 〈돈황〉(全 2권)을 펴냈다.

366년 '낙준'이란 스님이 단독 좌선할 목적으로 돈황 막고굴에 석굴하나를 파기 시작해 그후 1천여년동안 수백개의 석굴들이 만들어져 이곳은 불교순례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 특히 불교회화와 조각들로 가득차 있어 이 동굴사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하고 뛰어난 불교 미술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40개의 석굴은 연구결과 5세기초에서 11세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제1권은 연대별로 석굴벽화들의 부분도를 주제별·문양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제2권은 위트필드 교수가 최신 자료를 수집해 돈황석굴을 총괄적인 안목으로 다루고 있다. 불상들과 장엄 문양 등을 종교적·지리적·미술사적 관점으로 통찰 설명해 놓았다. 위트필드교수는 현재 돈황학의 세계적 권위자중 한명으로 4월20일 내한해 '돈황의 미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강익중씨作 '붓다를 찬양하며'.

'3인치작품' 5만여점 전시

재미화가 강익중씨 삼라만상 담아

'3인치 작가'로 불리는 재미화가 강익중씨가 5만여점의 작품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대규모 초대전을 갖는다.

아트스페이스서울(3월20일~4월20일) 학고재화랑(3월20일~4월20일) 조선일보미술관(3월20일~3월31일) 3곳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갖는 강익중씨는 세계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국제적으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로 가로 세로 3인치(7.6㎝)짜리 미니 캔버스에 일상사등 삼라만상을 담아 주목받아 왔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붓다〉는 좌정한 부처의 도상이미지에 작가자신에게 미국 유학시절 고통을 안겨줬던 영어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영어단어 외는 소리가 캔버스에서 흘러나오도록 했다.

또한 〈초코렛을 먹는 붓다〉 〈붓다를 찬양하며〉 등 붓다 시리즈는 동양과 서양문화의 조화를 시도하며 서양세계에도 열려있는 부처의 세계를 은유하고 있다. 〈숙〉

서울판화제 불자화가 대거 참여

이철수·강행복씨등…29일부터 예술의전당

판화미술의 대중확산을 위한 제2회 서울판화미술제가 오는 29일부터 4월7일까지 10일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에는 이철수 강행복 김영만 임효 황남채씨 등 불자 작가들이 각 화랑대표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고재화랑 대표로 나오는 이철수씨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연소재 작품을 선보인다. 나화랑 대표인 김영만씨는 '산사의 아침'등 생명의 본성을 찾는 시리즈 작품을, 현화랑대표로 참가하는 강행복씨는 불교 선관화시리즈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15점을 출품한다. 동산방화랑 대표로 참가하는 임효씨는 '반야심' '봄소식' 등 30여점을 내놓았다. 황남채씨는 '적지적(寂之寂)' 등 산을 주제로 한 연작시리즈를 소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서울판화미술제는 화랑기획전 공방기획전 관련업체전 특별전 등 다양하게 개최되며 특별이벤트로 각 대학 관화과의 관화제작 실연이 있을 예정이다.



◇제2회 서울판화미술제에 출품하는 김영만作 '심일견처'.

또한 특별기획전으로 스페인에서 직접 가져온 피카소의 멀티플 도예전과 폴 자크레의 1930~1960년의 한국의 풍물 및 풍속을 담은 우끼요에 기법의 다색 목판화도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벗겨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한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

월하종정 동안거 해제법어

—3월 13일 발표



上壇柱三下云
靈鳥不萌 枝上夢
覺花無影 樹頭春
柱一打壇下

단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 치신 후 이르시되
현명한 새는 싹트지 않는 나무 위에서 꿈을 꾸고
지극히 아름다운 꽃은 그림자 없는 나무 위에서 봄을 맞아 핀다.
주장자를 한 번 치시고 하단하시다.

12·12 5·18 재판 방청기

그들에게 정법의 형을…



진 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사람사는 세상에 어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정말로 권력이란 무상함을 알려주는 듯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들은 얼마나 당당히 맞섰던가.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다.

3월 11일, 그날은 나에게도 그들의 심판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회였다. 실로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여 그들을 보호하던 현정부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큰 생각을 출범 초기에 냈더라면 역사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쉬움이 있다.

재판에 임하는 군인들, 그들은 수천 수만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집권 당시 건립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법은 만인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사람을 위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이 지은 업보에 의하여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들어온 그들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단어를 나열하고 있었다. 변론을 하고 있는 자들과 검찰과의 논쟁을 묵인하는 재판관은 어쩌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군사반란자들을 비호하는 변호사들은 마치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변호사들이 흘린 눈물은 피의 눈물일 것이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몸에서는 더한 피눈물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몰랐을까.

그리고 광주민중을 학살한 자들이 현정권에 탄압을 받은 양심수처럼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법은 그들에게 정법의 형을 내리기를 바란다.

"심청전무대 백령도 앞바다"

옹진군, 관련학자 의뢰 고증·현장조사 밝혀

'도하동' 등 설화지명 실제와 일치
'인당수' 장산곶·백령도 중간지점

효녀 심청이 연꽃을 타고 환생해 장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했다는 심청전의 무대가 백령도 앞바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한국교원대 최운식교수등 12명의 연구팀에 의뢰해 이같은 사실을 고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작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백령도 주민 63명에 대한 설화 채록 〈삼국유사〉등 백령도 관련 사료, 필사본 〈심청전〉등 관련서적 90여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청전의 무대는 백령도와 황해도 해안지역인 황주 장연을 잇는 지역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는 이 지역의 민간설화인 '심청설화'와 그에 등장하는 지명이 현재의 지명과 일치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심청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황주 도화동이라는 설화와 관소리 사설본은 실재 지명과 일치하고 심청이 제물로 바쳐져 물에 뛰어든 인당수(임당수로도 불림)가 황해도 장산곶과 백령도 중간 지점이며 현재도 물길이 매우 사나운 점은 심청전(설화)과 일치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백령도 주민 63명이 들려준 심청설화에 등장하는 연화리와 연봉도 백령도의 지명이며 인당수에서 해류가 이 지역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따라서 황해도 해안의 황주에서 공양미 3백석에 몸이 팔린 심청이 인당수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용왕의 힘으로 연꽃속에 환생해 해류를 타고 백령도의 연화리를 거쳐 연봉에 닿았다가 상인에 의해 임금에게 바쳐졌다는 내용이 지명과 일치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 연구팀은 백령도가 신라시대 이후 중국과 왕래하는 항로에 위치해 해난을 피하거나 중간 기착지로의 역할을 함으로 심청전의 탄생배경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항해의 안전을 위해 바다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습속이 백령도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것도 연구팀은 주요한 단서로 보았다.

"심청전도 여타의 국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이본(異本)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의 줄기는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백령도 원주민과 황해도에서 월남한 주민들의 설화들은 이 지역 지명, 습속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최운식 교수는 "이들 심청설화는 소설 심청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첨삭보완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백령도 진촌리에 심청각을 세울 계획이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연꽃을 타고 환생해 해류를 따라와 닿았다는 백령도 연봉.

임연태 기자

법륜사 불교회관 건립 '청사진'

금강산 유점사 재현 "도심 신행도량으로"

태고종 법륜사(주지 혜일)가 도심신행도량으로 변신한다.

금강산 유점사 포교당으로 창건한 법륜사는 지난 9일 창건 68주년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경내에 지하2층 지상3층의 법륜불교회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실 덕암스님은 법륜불교회관 건립기금으로 7억원을 희사했으며 법륜사는 4월에 건축불사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불사를 추진키로 했다. 빠르면 오는 초파일을 기해 착공식을 갖을 예정인 법륜불교회관은 대지 1천 3백35평에 건평 6백98평 연면적 3천4백13평 규모이며 소실된 금강산 유점사 본법당처럼 53불을 봉안하는등 복원하여 '능인보전'으로 명명하는 등 본법당의 원래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대정신수장경), 중국, 스리랑카, 남전대장경, 영어관대장경등 세계 각국의 세계대장경전시관을 개설하여 신행의 길잡이로 널리 홍포하고 세미나실과 다목적강의실등 법회및 모임공간을 마련 대중포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륜사는 도심의 어린이포교를 위해 법륜유치원을 설립하여 도심포교도량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진각대 졸업·입학식

진각종 진각대(학장 도흔) 제6회 졸업식과 제8회 입학식이 지난 12월 총인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각해총인 락혜통리원장등 종단내외인사와 진각대 졸업및 입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백진결사회' 결성

젊은스님들 화합·대사회포교등 앞장

태고종의 20~40대 스님들로 구성된 '백진결사회(발기인대표 일로·현왕사 주지)'가 오는 22일 오전11시 신촌 봉원사 태고플라자에서 결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에 결성될 백진결사회는 태고종 전국 각지의 20~40대 젊은스님들로 구성되며 회원의 화합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의 철야정진과 토론을 통한 수행, 대사회포교, 종단발전정책마련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백진결사회의 한 관계자는 "백척간두에 서있는 종단의 승가상 확립과 새로운 포교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발기인은 정우스님(서대문 백련사) 진성스님(진안 마이산 탑사) 정원스님(안산 천수사주지) 성정스님(월간 불교사)등 20여명의 스님이다.

외국인노동자 1백여명 문화답사

불국사등 경주일대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마을(운영위원장 김동흔)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3~24일 1백여명의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불국사, 감은사터 등 경주일대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

이번 문화답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많은 근로시간으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여유를 갖지 못할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경불련의 자체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목탁소리

'파라미타'와 '맴피스트'

한 명 우
〈취재2부 기자〉

삼성문화재단이 지난 6일 문화예술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대규모 장학 프로그램인 맴피스트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맴피스트(MAM-PIST)란 Music, Art, Movie, Play의 첫글자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ist를 조합해 만든 것으로 음악 미술 영화(영상) 연극 무용 예술경영등 6개 분야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 해외유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장학제도를 통해 학위취득이나 창작연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와 국제화 속에서 전문성과 국제성을 갖춘 최고의 예술전문인력을 키워 차세대 문화예술계를 이끌게 하고, 21세기 문화전쟁에 대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교계밖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위치와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교계는 어떠한가. 며칠전 조계종 총무원은 이달말까지 전국규모 청소년불자단체인 '파라미타'를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가 '청소년의 해'이니만큼 이와 같은 단체를 조직해 청소년 문화창달과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벌써 3월이 반이나 지났다. 지난해 모든 기반조직을 완료하고 지금은 다양한 행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조직 운운 하고 있어 안타깝게 한다. 이러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은 고사하고 벌린 일을 수습하기에 그저 바쁠 뿐이다.

악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늘 탓만 일삼고 있다. 그러니 먼 장래를 내다보는 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사소한 명리보다 대의를 앞세우는 의연함, 창의적 사고와 행동, 멀리 내다보는 긴 안목이 절실하다. 맴피스트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과 15억여원 "목표 25%"

불교TV 3차 주식공모 결과

범종단 참여 저조…대부분 소액주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된 불교TV 제3차 불자주식공모가 집계결과 당초 목표액인 60억을 크게 밑도는 15억3천4백여만원으로 나타나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불교TV의 운영에 여전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3차 주식공모가 이렇게 저조한 청약실적을 보인 주요 요인으로 총3천2백2명의 청약자중 3분의 2가 넘는 2천5백56명의 청약자가 10만원에서 50만원대의 소액주주가 대부분이었다는데 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전체 청약자중 조계종소속의 스님과 불자가 61%, 미기재35%, 기타종단 4%로 나타나 범종단 참여가 의외로 저조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불교TV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고, 시청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주식청약자의 대부분이 서울 부산 경기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은〉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 첫 녹화가 지난 11일 관음사와 불광사 신도와 가수 편승엽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쇼…」 신설

영화 '유리' 수도승 왜곡표현 논란

개봉을 앞두고 있는 독립영화 '유리'(감독 양윤호)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불교이미지 손상여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심의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원소스님, 문화국장 덕신스님, 호법국장 토진스님 등은 "불교의 소재를 확대하고 영역을 넓힌 실험정신을 인정하지만, 주인공인 수도승 유리의 적나라한 정사묘사나 살인장면 등은 이해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해 이 영화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박상륭원작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각색한 유리는 수도승 유리가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광기의 극한까지를 육체로 체험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심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쉉글
전화 (053) 742 - 7855
051 -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연꽃 잉어화 기타(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장, 부적재료) 진품 식별법 및 진품 공개!!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법하
주 소: 경기도 여주군 점등면 관한 1리 26번지
사찰명: 정각사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주지 김 다 현 합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당·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덕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영무전 문짝
• 성남(법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옹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친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대한도서)
불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부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이러한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1백여명에 매일 점심공양

승복집 바느질 정성 사회회향

대구 '자비의집' 운영 황연명보살

노인·장애인들 "마음까지 배불러요"

부식비등 한달 경비만 5백만원

삭막한 도심 한가운데서 따뜻한 온정이 피어오르고 있다. 대구 자비의 집(대구 중구 남성로 39) 창건주 황연명보살(65)은 매일 불우노인과 장애인들 1백여명을 위해 무료점심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

35년간 승복집을 운영한 황보살이 94년 5월 인근 건물에 포교당을 연후 동년 8월에 무료급식소를 개설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땀 한땀 누빈 바느질정성으로 모은 돈을 더불어한 이웃을 위해 회향한다는 심정으로 자비의 집 불사를 했다.

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자비의 집 대표 황보살은 "비록 시작은 제가 했지만 모든게 부처님 원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끼 분량의 쌀만 남은데다 집세마저 밀린적이 있었는데 모 단체에서 쌀 4가마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한 보살님의 보시로 삼계탕을 해드렸습니다"고 말한다.

사실상 자비의 집은 임대료 부식비 포함 매월 5백여만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자원봉사자는 10여명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모를 봉양하듯 정성을 다한다. 음식맛은 정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찬 한가지에도 소홀함이 없다. 식기는 매일 삶는다. 주방은 누가 들어와도 쳐다볼 겨를조차 없을만큼 바쁘다.

일을 시작한지 1년쯤 됐다는 한 자원봉사자는 "일손이 딸려서 힘들지만 한껏 드신후 밝은 얼굴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 기운이 샘솟는다"며 활짝 웃는다. 이런 정성탓인지 오전 10시도 되기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루 평균 1백여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비의 집을 이용한다.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김병옥 할아버지(71)는 "달성공원과 칠성시장 부근에도 이런곳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낫다"며 "따뜻하고 깨끗해서 좋다"고 한다.

외롭고 허기진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자비의 집에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의 점을 찍고 나온다. (053-255-3248)

대구=이윤호 기자



◇황연명보살은 승복집을 운영하며 무료급식소를 개설하여 1백여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교계현안 해결 대정부 노력"

월주스님 13일 '사부대중에게…' 담화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3일 "최근 발생한 불교현안에 총무원이 적극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일부에서 청와대 오찬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나 청와대와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대립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전종도의 의견을 수렴, 강력한 요구와 실천을 해나가면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의연하고도 강력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은 금년에도 불교계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대정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교관련 각종 국가법령개폐 △성보박물관 추가건립을 위한 국가예산지원확보 △불교방송국 6개 지방망(전주 창원 대전 춘천 제주 속초)추가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독도망언 규탄대회

강원 범종단 사암련

강원도내 불교계가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하는 대법회를 개최한다.

강원도 영동·영서 범종단 불교사암연합회는 월정사 후원으로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독도망언 규탄 강원도 불자호국대법회'를 갖는다.

대법회는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의 법어, 발원문, 성명서, 결의문 발표순으로 진행되며 영동지구는 오는 20일 오전10시30분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영서지구는 21일 오후 2시 원주 법웅사에서 마련된다.

종법제정·사면동의 등 논의

27일 조계종 종회

조계종 제120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정우)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종회안건으로 △95년도 결산검사(3원)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3원) △직영, 분담금사찰 결산검사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119회 정기종회에서 이월된 안건 △각 상임분과 및 특별위 보고 △중앙선관위원, 재심호계위원보궐선거 △종법 제·개정안 △사면동의 △승가대 부지변경 △종립학원 감사 동의에 관한건 등을 상정했다.

대구·경북 시민회의 11일 출범

지역발전·복지등 전개

무공(동화사 주지) 태일(대구사원련 총무부장)스님을 비롯 대구지역 불교인이 대거 참여하는 새 대구·경북시민회의가 지난 11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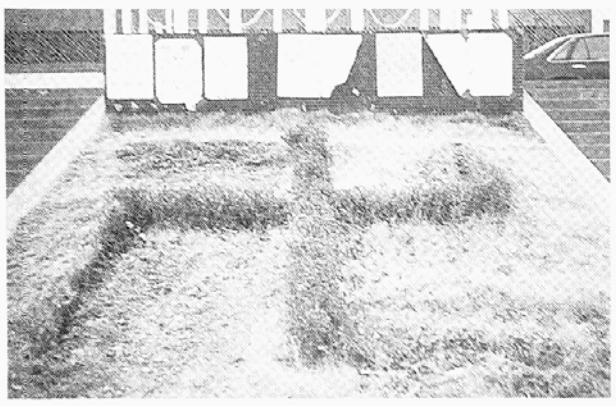
시민회의는 이날 △민주개혁, 지역발전, 주민복지의 실현 △지역의 새로운 지도력 배양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 추구 등 5개항의 규약을 확정했다.

6개월 학제등 토의

불교교양대 대표자회의

지난 12일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에서 불교대학의 종단등록에 따른 사후조치, 학제개편에 대한 효율성이 지적됐다. 또 대표자들은 포교원의 교재개발과 포교사고시의 합리적 운영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포교원은 3개월이던 학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학제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 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기게양대의 귀자 회양목이 지난 8.9일 십자가로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귀자 회양목이 십자가로 돌변

동대 경주캠퍼스 석림회등 '비행저지' 침묵 시위키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국기게양대 귀자 회양목이 지난 8일과 9일 十자가로 바뀌는 사태가 발생, 불교정신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대학에 대한 타종교의 잘못된 교내 선교활동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건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재봉(사회복지학과 4년)군이 지난 9일 국기봉 밑 귀자 회양목이 十자가로 바뀐 것을 처음 발견, 오후2시 불교문화대 집행부에 연락을 취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석림회(회장 도수)와 불교학과(학생회장 정중희)는 임시회의를 열고 피켓 및 전단을 제작하여 침묵시위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의, 교내에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와함께 11일에는 석림회,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불교아동하과, 국악과, 대불련, 불교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제1회 불교단체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학이념 구현기간 2주설정 △야외불단을 설치하여 침묵시위 △지속적인 자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불교학과는 전체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호법단을 구성하고 교내의 반불교적인 만행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부총장, 총학생회, 교직원노조, 문수회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동국가족은 일치단결하여 지성적인 대처와 대동단결을 통한 결연한 의지로 행위자 색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후 어떠한 경우든 캠퍼스 안에서의 선교활동은 용납치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주요사찰 유급포교사제 추진

조계종 포교원 신행단체 운영·내방객 포교 質향상 기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본말사 포교규정'에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교구본사 및 전국의 주요 사찰이 포교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포교원은 '규정' 초안에 '본사는 포교국 산하에 상임포교사 1인 이상을 임명하여 각종 포교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서도 "상임포교사를 선발하여 유급으로 각 본말사 또는 해당지역에 파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포교원도 포교활성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임포교사제도 정착을 주요종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마곡사와 직지사가 상임포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에 소속되어 직업포교사로 활동하게 될 상임포교사는 지도법사와는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 아직 상임포교사에 대한 이해가 본사마다 상황이 달라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법회 및 각종 신행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관람객 및 내방객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종교편향 규탄법회

대구·부산 이어 30일 조계사

(가칭)불교도대회 준비위원회(前 종교편향정책의 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효림))가 '종교편향정책의 시정과 교권수호를 위한 규탄법회'를 대구, 부산에 이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한다.

불교도대회 준비위원회는 3·29, 4·10 2주년을 맞아 종단개혁과 자주화 계승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서만 규탄의 목소리를 모은다는데 합의했다.

교불련 새회장에 오상환교수

정총서 집행부 선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지난 9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30여명의 회원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 5대 회장에 오상환 교수(인하대 수학과)를 선출하는 등 새집행부를 구성했다. <인터뷰 4면>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교수들은 침체된 교수불자연합회를 활성화하기로 다짐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역할을 증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임원에는 수석부회장에 류종민교수(중앙대), 서울부회장 이인자교수(경기대), 사무총장 김용덕교수(한양대), 총무부장 이석희교수(경기대), 학술부장 연기영교수(동국대), 기획부장 윤세원교수(인천전문대), 재무부장 서혜경교수(전주대), 섭외부장 하수경교수(전주대), 국제부장 최창선교수(상지대)등이 선출됐다.

한편 교불련은 오는 22일 첫 신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사)한국불교문화연구원 부설 수안불교대학(학장 세민스님)이 지난 12일 수안사에서 제1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1백6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마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라고 하는 생각과 의지가 나를 고정된 나로 멀게 만듭니다. 그것은 언제나 밖에서 찾는 버릇 때문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눈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임야 "急" 매도

◆용도
- 사찰적지
- 수행도량처(기도처)
- 실버타운

◆임야크기
약 2만 7천평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소요시간
- 서울 - 현장 (승용차편) 1시간
- 청량리 - 현장 (시내버스)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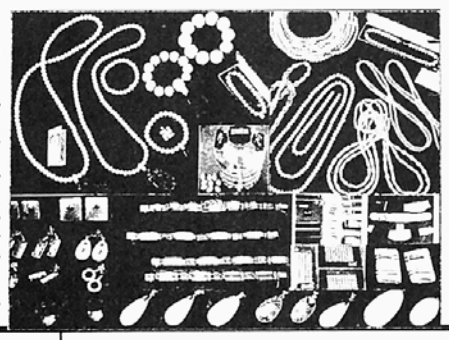
■ 연락처 : 737 - 2001 ■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심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하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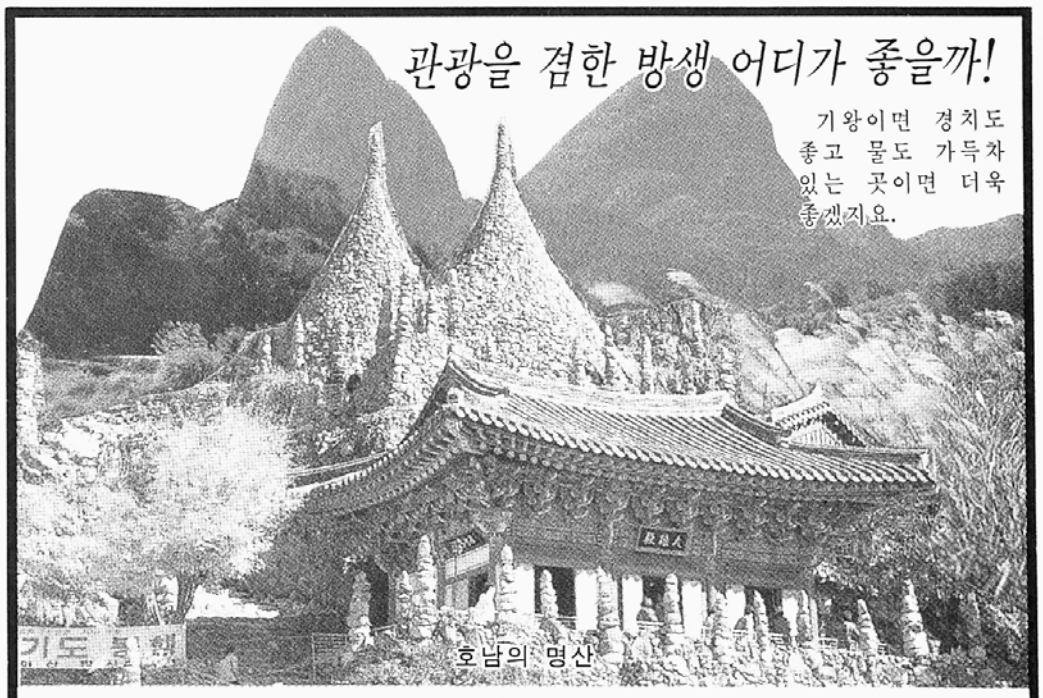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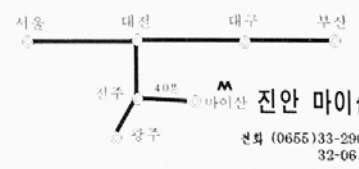


호남의 명산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건강백세 ⑦

귀병

리시버 오래 끼면 난청·이명·환청 유발
중이염 감기가 원인…화농성일땐 뇌 위험



흔히 귀에서 농(膿)이 나오거나 상처만 있으면 전부 다 중이염(中耳炎)으로 아는 수가 있지만 대개는 외이도염(外耳道炎)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열이 나고 분비물의 양이 많아 잘때는 종이나 솜으로 틀어막는 것은 위험하므로, 열어진 상태에서 농이 밖으로 흘러 나오게 하는 것이 좋으며 즉시 전문의를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균이나 기타 잡균의 감염도 염려되므로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귀후비개는 피해야 한다.

중이염은 감기에서 오는 수가 많은데 중이와 콧속을 연결하는 이관주변(耳管周邊)의 점막이 부어서 귀가 막히는 이관협착(耳管狹窄)이 온 후 소아의 경우는 인두편도(咽頭扁桃)증식과 합병 되기도 하고 노인들은 중이속에 삼출물(滲出物)이 고여있는 수가 많아 난청이 된다. 세균감염으로 인한 화농성중이염은 증세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측두(側頭)와 가까운 위치로 뇌에까지 파급될 수 있고 후유증으로 난청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치료를 해야한다.

한방요법으로는 담경(膽經)의 염을 해소 시키는 청열성(淸熱性)약물을 투여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보조요법으로 탁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장시간 귀에 레시바를 꽂고서 책을 보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자주본다. 이는 귀에 난청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명(耳鳴)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환청(幻聽)현상까지 야기시키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피곤하거나 고지(高地)에 오른 후 발생했다가 귀지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남아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 계속 줄기차게 울어서 못견디겠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 전문의 진단으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그에 상응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원인불명성 이명의 경우는 대개 신기능(腎機能)이 허약해졌을 때에 주로 발생한다. 신기능은 비뇨생식계(泌尿生殖系)를 주관하는 기능으로 소위 말하는 정력을 관장하는 기능이다. 여러 원인으로 정수(精水)가 고갈되면 허화(虛火)가 상승하여 이명을 일으킨다고 보아진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소중한 만남 ③·〈끝〉

나라고 여겼던 자만심·습관·고정관념 깨뜨리는 아픔 감수

불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필요없는 걱정과 번뇌를 잊으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아이 낫게 해달라는 좁은 소견의 기도대신 마음을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참회기도를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변화하자니 많은 것을 깨어야하는 아픔이 수반됐습니다.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자만심도 과감히 쥐어버려야 했습니다. 몸으로 오랫동안 익혀온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도 힘들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인것 같았습니다.

무엇하나 한군데 머물러 고정관념을 갖고 살 것이 없는데도 눈뜨면 만나는 경계 마다마다 그냥 지나치는 일없이 시비를 걸어 스스로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편견이라고 자각하는 지혜를 내기도 어려울 수 밖에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위축된 마음으로 스님을 뵙때면 한참을 묵살로 수척해지신 얼굴로 가끔 아픈 것도 재미있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육신의 아픔까지도 재미있다고 하신 스님께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순간 물러서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갑절의 힘이 드니 경전을 읽거나 공부를 할때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내어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아이를 스승으로 알아라'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한 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의 아들은 심한 뇌성마비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삶을 깊이 조명해 볼 수 있었다. 나의 작품도 아들을 통해 더 깊고 심오한 문학세계로 심취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영관을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림 · 이준석

그렇습니다. 역경은 딛고 일어섰을 때만이 찬란히 빛납니다. 그때부터는 역경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아이를 스승으로 여기라고 하셨을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불교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적당히 만족하며 안주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스님께서는 아이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만이 전부이고 남들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던 이기심을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잊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감한 아이는 엄마의 권안해진 마음을 금방 감지하고 감정이 많이 순화되고 짜증도 줄었습니다. 어느새 엄미보다 훌쩍 커버린 아이의 뒷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저려오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은 아닙니다. 부족한 이 어미의 몸을 빌어 태어난 인연으로 내생엔 좋은 곳에 태어나 마침내는 성불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깨달았다고 세상이 바뀌는건 아닐겁니다. 바뀌는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이겠지요.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다가도 어떤때는 마음에 물결이 치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듯 우리의 마음도 물결치는 마음따로 고요한 마음따로가 아닐진데 그 고요한 마음을 찾으려고 수행과 정진을 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생각을 모두 겁으로 드러낼 수 없듯이 이 글은 내 생각의 작은 부분 밖에 안되지만 불교에 대한 짧은 지식과 얕은 신심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큰 불심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만 나를 한번 돌아봄으로써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며 채찍질로 삼겠습니다. 많이 알도록 애써서 목마름을 채우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닦아 나의 것으로 하는 노력을 실천해서 진정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기까지 한걸음 한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과의 이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이 세상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역경은 딛고 일어섰을때 찬란히 빛납니다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㉙

♦ Bhagavat : 'The man who is drowsy, fond of society and without energy, lazy, given to anger, -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5)

"활기가 없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며,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third loser : tell us the four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6)

"참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being rich does not support mother or father who are old or past their youth,—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7)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fourth loser : tell us the fif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8)

"참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by falsehood deceives either a Brahmans or a Samana or any other mendicant,—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9)

"바라문이나 사문, 혹은 다른 걸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rowsy 활기가 없는
* falsehood 거짓, 허위
* mendicant 탁발 수도승

오종욱 기자

싯다르타 ㊾

헤르만 헤세 作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바라문의 훌륭한 아들 싯다르타는 자기의 집 근처에서, 양지바른 강가에 매인 조각배 곁에서, 사과나무 숲에서, 무화과나무 그늘밑에서,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망고나무 숲에서 장난을 칠 때나 어머니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나 성스러운 제물을 바칠 때에나 아버지의 교훈을 들을 때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울 때면 나무 그늘의 그림자가 새까만 그의 눈으로 흘러들어 갔다.

이미 어린 나이에 성현들의 담론에 끼어 들었으며 친구 고빈다를 상대로 변론을 연마하고 관찰력과 명상의 방법을 익혔다. 싯다르타가 거리를 지날때면 바라문의 젊은 처녀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싹텄다. 모든 사람들이 싯다르타를 사랑 했고 싯다르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모두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싯다르타는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 쾌락에 몸을 맡기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고빈다의 사랑 조차도 마음의 갈증을 가라앉혀 주고 허기를 채워주며 만족을 주지 못하리란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와 스승들이 그들이 가진 지혜의 대부분을 전수했지만 그의 예지는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안정되지 않았다.

제물을 바치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 세상을 창조 했다는 푸라야파티는 과연 존재하는가, 유일자 아트만 외에도 제물을 바쳐야할 존재 공경하고 사랑해야할 존재가 또 있을까, 아트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는 어디에 안주하며 그의 영원한 가슴이 고동치는 곳은 어디인가.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 마음 속에는 우리들이 찾아야 할 본원(本源)의 샘이 없단 말인가.

싯다르타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갈증이며 그의 고뇌였다. 그러던 어느날 사문도(沙門都)의 고행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서는 말없는 정열 빼를 깎는 봉사 가차 없는 자기 희생의 뜨거운 열기가 풍겼다. 그날 저녁 명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싯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말했다.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사문도한테 가려 하네. 사문도가 되려는 것일세."

"싯다르타여, 자네의 부친께서 허락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싯다르타를 사랑했지만
싯다르타는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

싯다르타의 의지는 확고 했다. 싯다르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소자는 내일 아침 아버님 곁을 떠나 고행자들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사문도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는 그런 소망 따위는 입밖에 내지 말도록 해라."

이버지는 엄격하게 말했다. 싯다르타는 몇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림 · 심민섭

필자약력
- 1877년 7월 2일 독일 슈바젠지방의 칼브에서 출생.
- 1904년 〈헤터 카멘친트〉로 작품활동 시작.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청방순례〉 등 걸작 다수 발표.
- 1962년 8월 9일 별세.

생활 속의 불교 ⑥⑥

'그의 것'을 서슴없이 빼앗는 사람들

애 지중지하던 물건이 망가져 못쓰게 되면 아쉽다. 제 물건을 남이 빼앗아 가거나 부숴 버리면 화를 낸다. 때로는 법에 호소하여 되찾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자기 물건이라면 라이터 한 개라도 아쉬워하면서 '그의 것'은 서슴없이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낚시하고 사냥하고 개를 잡고……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고 땅가뜨린다.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그의 생명을 짓밟고 파괴한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거나 죄스럽다는 생각조차 않는다. 아니, 당연시하고 즐거워하고 제법 고상한 척한다.

불 살생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모두 생명체로부터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섭리이다. 고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살생하지 말라 하는가.

생 명 유지를 위한 살생, 그것은 공양(供養)이어야 한다.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고귀한 자기 희생 - 공양인 것이며 받는 입장에서는 눈물겨운 수용 - 자비의 응공인 것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고 받는 의식이니 고귀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랑, 죽음으로써 바치는 사랑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한낱 즐기기 위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 내것이라면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유일한 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우 리는 매일 그토록 고귀한 헌공에 의해 살아 간다.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않으랴.

그런 의미에서 식전(食前)의 합장기도는 그 감사함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내게 바쳐진 모든 생명 공양을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를 살리기 위한 모든 희생과 함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리라는 이타의 표시이어야 한다.

내게 생명을 바친 고귀한 헌공이 있었듯이 모든 생명체에게도 그와 같은 공양이 있기를 바라는 발원 행위이어야 한다.

그 고귀한 희생에 의해 살아 가면서 내 어찌 허튼 짓을 하랴, 악행을 하랴. 내가 허튼 짓 하고 악행을 한다면 내게 바쳐진 그 공양은 다 어찌란 말인가. 너무나 억울한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니 어찌하랴. 선량한 언행으로 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숱한 빚을 다 어찌 감당하랴. 생명을 바친 존재들의 억울함을 다 무엇으로 어루만지랴.

살 생이 헌공 - 응공이 되면 살생이 아니다. 파계가 아니라 지계가 된다. 희생도 생명에게 천도가 된다. 그러나 살생이 단지 살생으로 그치면 그것은 파계가 된다. 악업이 된다. 어찌 취미삼아 살생을 하랴. 참회하고 또 참회할 일을 무엇 때문에 되풀이 하랴.

내 물건 아끼는 만큼이라도 '그의 것'을 아껴 준다면 몸에 좋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먹고 즐겁다고 죽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내 가 받는 그 고귀한 희생, 나를 살리고자 목숨을 내 놓는 그 눈물겨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나도 그만큼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따르는 불자의 삶이다.

태산 같은 사랑으로도 갚을 길이 아득하거늘, 어찌 허튼 짓 하고 악행을 하랴. 더구나 보은은 못할 망정 살생까지……

협찬 : 장 우 현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